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illegible]

財政準備薄弱으로 叛亂軍資金難!

軍事公債發行、物資强制徵發

意外方面에서 破綻?

【가사블랑카(佛領모록코)二十七日發同盟】反亂軍總司令프랑코將軍은 西班牙領 모록코에잇서 全軍을 督勵하고잇는데 政府軍의 頑强한 反擊을當하야 擧事以來旬日이되여도 아즉 首都마드리드市는陷落되지안코 그동안발서財政準備의薄弱을 暴露하야 重大한 軍資金難에 逢着하얏슴으로 프랑코將軍은 資金調達에나서서 어미 臨時革命政府의 名義로 軍事公債發行을 爲하야 物資徵發、戰時稅賦課令을 發布키로 決定하얏다는바 戰鬪가 다시오래끌리면叛亂軍은 軍資金의枯渴로 意外의方面에서 破綻을生할듯하다

叛亂軍根據地를 政府軍飛機爆擊

【지브랄타르二十七日發同盟】政府軍爆擊機數臺는七日夜마요르카島팔마市爆擊을敢行하야 叛亂軍에게 相當한損害를與한模樣이다

【마드리드二十七日發同盟】政府軍飛行機數臺는 二十七日 叛亂軍의 根據地테투안市를 襲擊하야 同地飛行場에 爆彈을加하고 叛亂軍의 飛行機二臺를大破하엿다

西都駐箚各大公使 共同要求提出

【마드리드二十七日發同盟】마드리드駐箚各國大公使는二十七日西班牙政府에對하야

一、各國大使館 公使館의 保護
一、本國政府와의通信自由
一、食糧供給의保障

에對하야 共同要求를 提出하엿다 右各國의 要求에對하야 西班牙政府는 될수잇는대로 努力할旨를 言明하얏다

航空本部大改革

【東京電話同盟】航空防空의充實整備에關하야는 陸軍에서 目下十二個年計畫에依하야 着着具體的計畫을 進行하고잇다 昨年七月二十五日 軍令으로서 飛行團司令部令이 發布되여 八月一日부터 第一飛行團 司令部가 岐阜에 第二飛行團司令部가 會寧에 設置되며 江橋英次郞、中島香秀夫兩大佐가 各各飛行團長에任命되는同時에 航空本廠、全國要地數個所에 支廠을設置、다시濱松에 航空技術學校、熊谷飛行學校를創設、所澤飛行學校는 主로 飛行將校를 養成하고 熊谷飛行學校는 下士官、少年航空兵의 養成을 主로한다 그리하야 航空本部의 內部機構에 改革을加하야 事務 組織强化를 보엿는데 다시 本年八月一日實施되는 陸軍省官制의 大改正에依하야 從來 陸軍省이 管掌하던 一般航空行政 即 機材、硏究、民間航空에關한 事項이 航空本部의所管에 移管된結果 航空行政의一切는 航空本部의管掌으로되엿다

皇太子殿下那須行啓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옵서는 去八日以來 二十日間 葉山御用邸에서 지내섯섯는데 二十八日御姉宮照宮內親王殿下와함께 海의 御用邸에서 山의御殿那須御用邸에行啓하시엿다

地中海協約無用

委任統治領은放棄치안는다

英外相、外交方針闡明

【倫敦二十七日發同盟】五個國會議를 압두고 歐羅巴國際政局이 極히微妙한 動向을보이고잇는此際 이든外相은 二十七日午後外務省豫算案討議에 關聯하야 英國政府의 方針을 闡明하고 特히 次의諸點을 强調하엿다

一、伊太利政府의 態度가緩和된結果 地中海上의 情勢好轉하고 地中海相互援助協約은 無用에歸하엿다
一、英國政府는 委任統治領을放棄할 意思는업다 그러나資源의再分配에 對하야는 各國政府와商議할 用意가잇다
一、聯盟改造에 對하야는伊太利政府는 愼重善處할方針으로來九月總會에서는 이든外相과 팩스國務尙書、말콤·맥도날드三代表가出席할 外務省豫算案에 對하여는 自由黨에서 削減論이 나왓는데 右修正案은 二九〇票對一四三票로否決、三二三票對一三八票의壓倒的多數로 原案을 可決하엿다

會計曆年制를 政府도贊成

常置委員制에는反對

【東京電話同盟】會計年度改正議會常置委員設置의 兩問題는 政民兩派를 爲始하야 衆議院各派의 一致한 主張인대 二十七日開會된 議院制度調査會初總會서 政府는 次田法制局長官으로부터 此點에關하야 會計年度에關하야는 曆年制採用에 異議업스나 常置委員會에는 政府는絕對反對의態度를 表明하야 注目을 끄으럿다 即이날의 調査會에서 政府側과委員의問答은 如左하다

◆會計年度問題

問 會期의變更은하드래도 會計年度를 改正할必要는 업지안흔가
答 會計年度改正에는 召集期의 變更도 必然的으로 伴하는問題이므로 함께考究하고잇다
問 會期三個月은 不足치안흔가
答 三個月會期의 變更은 憲法規定에 關係됨으로 問題로하지안는다
問 議會召集期에關하야는 四月說과 九月說이잇는데 政府는 어느것을 便하다고하는가
答 政府는 愼重히考慮하고잇스나 九月說이 조타고생각한다 即會計年度의 曆年制採用이 適當치안흘까생각하고잇다

◆常置委員問題

問 常置委員을設置하면如何
答 調査會의 意見에基하야 善處하는데 常置委員制는 憲法上疑義가잇스므로 곳贊成할수는 업다

駐佛西班牙大使 軍用機로巴里에

本國政府의重大訓令을바더

重要한外交工作開始

【巴里二十七日發同盟】新任巴里駐箚西班牙大使 아르보르노스氏는 二十七日 軍用機로 動亂의祖國을 뒤로 任地巴里의 르·브르제飛行場에到着하엿다 新大使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外交工作에活躍할듯한데 動亂의新情勢에鑑하야 西班牙政府는 同大使에게重大訓令을내린듯하야 同大使動向은 자못注目되여잇다

政府重要國策等 再檢討가必要!

政友會進言案을決定

【東京電話同盟】政友會는 廿九日 芝三緣亭에 政調幹部、總務聯合協議會를開하고 廣田內閣에對한 國策進言의件에關하야 審議한結果 中間報告를終了한 國策의根本主義에對한 報告를行하고 [illegible]後 進言案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決定할터인데 進言案의大體綱領은 左의骨子로 이때까지表明된 國策의內容을 結局綜合檢討한것으로 될모양이다

國策進言案은 大體二部에分하야 第一部는 現下의 國情에照하야 [illegible]로 必要하다고規定하는 大國策의綜[illegible]的統合化 第二部는 政府가 目下 表示하고잇는 各般의 具體的國策에 政友會의 主張見解를 加하야 政府에參考로 資하는同時에 黨의態度를闡明한다 即

第一部 國策의[illegible]的統合
一、外交國策의確立
政治的으로 國際聯盟은 完全히 無力化하야 各[illegible]은 [illegible]을 [illegible]하고 現狀維持에 努力하는 [illegible]的[illegible]에·對하야 現狀打[illegible]하는 [illegible]日本은 如何한方策을取하려하는가 此는 日本의現狀에잇서서 第一次的重要性을가질것이다 即日本은 東洋의 安定勢力인 嚴然한 事實에 鑑하야 對中對蘇對英米外國과의 國交調整에 積極的으로 進出할時機에 到達하여잇다 여기는 從來와가티

[illegible]의 [illegible]的으로 [illegible] 責任平和의 將來에必要한 方法을 率直히 大大的으로 [illegible]할것이다 또國防計畫과 國防의 [illegible]合理化도 이國策의確立을기다려 비로소[illegible]할수잇는것이므로 [illegible]그國策을 確立할것이라는것이다

一、行政機構의 改革
行政機構의 改革은 單히 形式上의 變革에 머지지안코 進하야 運用精神에까지 根本的改革을 [illegible]할것이라한다 即中央에서는 內閣制度의 再檢討와 [illegible]分掌의 [illegible]하고 能率的으로하는 同時에 地方에서는 地方實情에 [illegible]하야 產業[illegible]政策을 能率的으로 實施할수잇도록 改革하며 다시人事에 新生面을 [illegible]現行行政機構를 根本的으로 改革

[illegible]할것이며
第二部、國策에對한[illegible]
一、[illegible]防止[illegible]
[illegible]은 [illegible] 十[illegible]年計[illegible]四[illegible]의 [illegible] 決定하여스나 [illegible]防止는 [illegible]的[illegible]에서 다시 [illegible]의必要가잇다고 [illegible]한다
一、[illegible]
[illegible]案이 今日까지 決定되지못하엿스므로 此[illegible] 案에비추어보드래도 그[illegible]의[illegible]와 低[illegible]한 [illegible]力料金이[illegible]立할는지는 매우[illegible]이다 따라서 將來여러가지로 硏究의[illegible]가잇다고한다
一、義務敎育年限延長
今回의 年限延長案은 財政上[illegible]에對한 影響을 考慮하야未熟한案으로 認定함으로 黨으로서는 [illegible]로 支持할수업다

[illegible]
[illegible]하고 正午散會하엿다 또 [illegible]에서의 [illegible]은大[illegible]左와如하다
一、委員會는 [illegible]의 [illegible]에對하야도 [illegible]할것인가
一、五項目에 [illegible] 理由如何
이에對하야 次田法制局長官으로부터 政府로서는 貴族院[illegible]는 [illegible]로 調査하야잇고 도[illegible]制度調査委員會를 設置하야 各各 硏究하고잇스나 本調査會에서는 衆議院의 決議에 基하야 諮問事項을 限하고십다고 回答하여 다시 議會召集期日及 常置委員에 關하야도 期限과如히 次田法制局長官으로부터 答辯의 意見은 今後總會席上에 [illegible]만안니라 隨時書面으로서 提出키로하엿다

議院制度調査 特別委員任命

【東京電話同盟】議院制度調査會의會計年度變更에關한 特別委員會委員은二十八日 廣田首相이左외十名을指名하얏다 來週中第一回委員會를 開催할豫定이다

法制局長官 次田大三郞
衆議院書記官長 田口弼一
貴族院議員 西野元
貴族院議員 黒田長和
貴族院議員伯爵 林博太郞
衆議院議員 濱田國松
同 齋藤隆夫
同 山崎達之輔
會計檢査院部長 岡今朝雄
大藏次官 川越丈雄

議院制度調査會 第一回總會

【東京電話同盟】議院制度調査會第一回總會는 二十七日午前九時二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會長廣田首相 副會長富田衆議院議長(近衛公缺席)各委員과 幹事가出席하야 會長廣田首相으로부터 人事가잇고 이어서 議事規則을 決定한後 次田法制局長官이 諮問第一號『議院制度運用에關하야 改善할事項如何』를 朗讀하야 議題에 供하고 次田長官은『本調査會의 權限과 取扱할 問題의 範圍에 關하야議院法以外에關해서도 取扱할터인데 貴衆兩院의 組織에關하야는 取扱지안흘方針이다』라고 述하고 이에關聯하야 左記五項目에 首한 參考資料를 提供하엿다

一、議會會期의變更
一、議事方法의改善
一、議院內의 調査設備의 完備
一、議會의品位와 威信의向上
一、常置委員制度의 設定

右諮問第一號及 參考資料를中心으로 各委員으로부터 一、議會會期變更에 關한 件은 特別委員을 設置하야 審議硏究키로하고 그員數 及委員은 [illegible]

竹內咸北知事後任 兒島高信氏로決定

【東京電話同盟】竹內咸北知事異動은 退에伴한 朝鮮知事異動은 二十八日의閣議에서 左와如히決定되엿다

任朝鮮總督府咸鏡北道知事(二等) 兼朝鮮總督府鐵道局理事 朝鮮總督府事務官 正五位勳五等 兒島高信
依願免本官 朝鮮總督府咸鏡北道知事 竹內健郞

兒島會計課長後任

藤本大郞稅務監督局長決定

總督府會計課長兒島高信氏의咸北知事榮轉에伴한 會計課長後任은 大邱稅務監督局長藤本修三氏로決定되엿다

社員採用

一、美術學校出身、工藝學校出身 又는商業美術、圖案等에 經驗이잇는者
一、年齡三十歲以下

右希望者는 七月三十一日까지 本社庶務部長에게 履歷書를郵送하시압 (面談은 謝絕)

朝鮮日報社

駐에公使館廢止 領事館만을設置

聯盟理事會의不承認?

駐伊獨大使正式通告

【東京電話同盟】二十八日杉村駐伊大使로부터 外務省에의 公電에依하면 去二十五日駐伊獨逸大使하셀氏는 伊太利外相치아노伯을訪問하고 獨逸政府는此際에디오피아公使館을 廢止하고 此에代하야 領事館을 設置하기로決定한旨를 正式으로 通告하엿다 右는 獨逸非聯盟國인 獨逸에서 聯盟理事會의 不承認決議에는 조금도 돌보지안코 伊太利의 에國併合을 事實上으로承認한것인데 이것은 東阿問題善後處理에對한劃期的英斷外交로 보인다 그리고獨逸 伊太利兩國關係는 요전伊太利의斡旋으로 締結된 獨墺協定案에依하야親善의一步를 내드딘바 今番은 獨逸

西班牙叛亂縱橫觀

팟쇼陣營의總帥

로브레스氏의爲人

韓普容

叛亂軍側은 二十日에 아즉도政府軍 叛亂軍의 勢力이 伯仲되여 그어느便이 勝利할는지 豫想을 許諾지안커니와 이러케까지 頑强한 叛亂軍의 背後에는 어떠한 人物이 잇는가.

이番叛亂軍의 總帥 프랑코將軍은 獨裁王리베라의 모록코遠征에 勇名을날린 天才的戰略家로 當年 四十三歲의 壯年野心家라한다。一九三四年十月右翼政權時代에 參謀總長이라는 要職에 任命되엿더스나 左翼政權의 再登場에 伴하야 카나리아島의 防衛司令官이라는 閑職으로 左遷하게 되여 이에 不平이 滿滿하엿던 프랑코將軍은 그後 本國政府[illegible]다가 王黨派首領 소테로元相 暗殺事件으로 本國政府의 極히 不穩한것을 豫知하고 本國內의 右黨分子와 巧妙히 聯絡을取한後 十八日 突然 모록코로 進擊하야 主要都市를 占領하게되엿다는데 그와함께 擧事할 豫定이엿든 호세산후르호將軍이 리스본에서 飛行機로 本國으로 進出하다가 飛行機의 墜落으로 絕命하게되엿 擧事로 叛軍 計劃이 豫定대로 迅速히 成功되지못하엿다 한다。

이것이 最近報道된 프랑코將軍 및 그의叛亂의顚末에 한 귀스어니와 今回叛亂의背後의 배그라운드가되여잇는 西班牙의 팟쇼的 右翼陣營의 總帥는 우에서도 稱讚 指摘한 일이잇는「악숀·포풀라」即 右翼人民戰線의 盟主 힐·로브레스氏이다。

힐·로브레스氏 (Joe Maria Gil Robles)는 사라망카大學 一教授의아들로 一八九八年生의 當年四十八歲의 壯年鬪士이다。그는 最近 西班牙三大地主의하나인 데비리지제드伯爵의 女婿과 結婚하얏다는데 일즉이 사라망카大學에 入學하야 法律을 專攻한後 마드리드에서 博士의 學位를엇고 卒業後악숀·포풀라의 大機關紙인 日刊新聞『엘·데바테』의 編輯助手로잇서 新聞關係로 歐洲各地及米國으로 도라단인적이잇다。新聞人으로 活動하는以外에 그는 젊은카톨릭敎徒를 糾合하야「악숀·카톨릭」을 組織하고 카톨릭協會라는 學究團體도 組織하엿다。또 프리모 데리베라獨裁政治時代에는 國內法起草에 助力하엿다。

그는現在 農民大衆黨(Acción Popular Agraria)의 黨首로 實際에잇서 右翼西班牙國의 獨裁王이다。一九三三年十一月總選擧에 大勝한그는 自身은閣僚지안코(後에陸相으로 就任한일은 잇섯다)背後에 안저 레루內閣을 제마음대로 操縱하엿다。

로브레스氏는 一九三〇年無血革命後 帝政復活을 꾀하여스나 只今은 그것은 斷念한모양이다。그리고 그는只今 팟쇼西班牙의 建設을 目標로 左黨戰線撲滅에 熱中하고잇다。그의 所謂 四大敵이라는것은『마컷스主義、프리메-손結社、分離主義者及 猶太人』이다。그의 主張에依하면 私有財産은 自然的權利이며 國家經濟의 緊要한 部分이다。階級鬪爭은 勞働者나 資本家나 다가티 그原則下에 基督敎社會學의 光彩미테 融合될것이라한다。離婚法은 廢止할것이며 普通選擧制限法은 禁止하고 婦人參政權은 宗敎心을 阻害하는것이라하야 憤慨한다。

社會主義派、左翼共和派及保守共和派들은 로브레스氏를 指稱하야 似而非的 히틀러 또는「무솔리니」라하며『악숀·포퓰라』를 따시스트黨으로 看做하고 때에따라서는 僧侶派 파시스트라고도 부른다 로브레스自身은 他人이 그를 팟시스트라고 부르는것을 極히 싫어하며「나는 決코 팟시스트가아니라 부르조아 데모크라시-의 信奉者다」라고 公言한다。그의 黨派內에서도 극그는 共和黨을 擁護하고 强力한 中央集權을 確立하는 所謂 第三共和國派에 邁進하는 [illegible]라고 말하고잇다。[illegible] 힐·로브레스氏는 大地主及 카톨릭敎徒의 熱狂的支持를 밧고잇거니와 그들은 로브레스氏를『西班牙의 救主』라고부른다。그리하야 國家 非常時에 際하야는 그들은 로브레스氏에게 無數한 祝電을 보낸다고한다。그祝文中에는『西班牙의 救世主여 永遠히 生存하소서!』『神이여 우리의 指導者 힐·로브레스를 恒常保護하소서!』『我等의 指導者는 絕對로 잘못하는일이업다!』『神의 말슴에依하야 我等의 指導者가 命하며 우리는 이에 服從한다!』等의 狂熱的 熱情的 文句가 잇다。[illegible]로는 로브레스氏가 지나간 귀에 키스하는 婦人까지잇다한다。

以上 諸事實에 비추어 힐·로브레스氏가 어떠한 人物이며 그의 指導하는 팟쇼陣營이 [illegible]어 大略 推測할수잇슬것이며 同時에 이번叛亂軍의 勢力이 저와가티 强大한것이 決코 한두名의 陰謀에만 依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아울러 알수잇슬것이다。(完)

(寫眞은 西班牙叛亂軍總帥프랑코將軍)

綏靖公署主任就任 黃紹雄氏辭退

責任重大를理由로

【上海二十八日發同盟】二十六日夕刻廬山着、直時로 蔣介石氏와 凡一時間에 亘한會見을한 黃紹雄氏는 廣東綏靖公署主任 新任命을辭退하엿다 二十七日黃紹雄氏는左와如히 그理由를 말하엿다

余는軍人出身이나 近年은 專혀 政治에 從事하여섯고 또 한廣西를 떠난지가 오래인만큼 二個의 軍隊를 統制하야지 못한다 蔣介石氏의 命에依하야假令綏靖公署主任에 就任하여도非才로서그重責을다할自信이업다 余도廣西人인以上 故鄕의安危에對하여서는 남다른 關心을가지고잇다 그런만큼失敗를저어함으로 辭退한것이다

그러나 蔣介石氏는 目下極力勸說에努力하고잇슴으로 結局黃紹雄氏의承諾을어들것으로觀測된다

八面鋒

千萬圓軍事位에서 [illegible] 政의 地位가 [illegible]되엿다는것

◇

國防費는 [illegible] 軍部의 [illegible]

◇

庶政一新 民衆大臣은 크만[illegible]는것이 조화꾼 總理大臣에 [illegible] 中에서 散策。

◇

[illegible]을 알어야한다

◇

二億이나 三億의 增稅로는 [illegible] 民之[illegible]이다、公債이 잇스면 公債를 [illegible]하면 마[illegible]지 [illegible] 잇다。

◇

[illegible]지아니하야도 [illegible]치 [illegible]

◇

이바람에 廣田內閣이 [illegible]할것인가、[illegible]할것인가。

배암 놀니는자 죄를 희롱하는자

『이다리꼭에 배암 부리는 사람이 하나 잇어서 항상 五、六조파장의 十척 넘는 큰 배암을 칭칭에 너허 가지고 무대에 나와서 수천명 구경꾼 압에서 배암을 끄내여 자기체를 발벗지서 정수리까지 감앗다가 다시 풀어내리는것인데 실로 위험한 작난으로서 [illegible] 비상한 재주를 보이던것이 이러한 일로 인하야 [illegible] 소리가나게 되여 [illegible] 꼿마다 모혀드는 구경꾼이 만흐므로 더욱 의긔가 양양하야 위험한 작난을 계속하게 되엿다 그러나 생각잇는 사람은 다 그 위험을 경고하엿다 저는「무어 별일 업습니다 배암은 고양이 가리 길드럿스니까 위험한 일은 조금도 업습니다」하고 아주 옷고 말엇습니다 그래던니 어떤 날에 전과 가리 배암을 가지고 무대에 나와서 자기 몸에 둘너 감고로 수천의 관람자들의 갈채를 바들려고 [illegible] 배암은 [illegible] 그는 [illegible] 한마듸 무슨리유인지 [illegible] 몸에 감긴채로 벗어나 도로 [illegible] 전가티 [illegible]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며 [illegible] 처참한 광경을 본 군중은 [illegible] 극장에서 도망하야 [illegible] 듯한 사람은 죄의 위험을 [illegible] 에하야 다투어 [illegible] 하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illegible] 파멸을 당할수 밧게 업는 [illegible] 일으기를『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낫나니라』하엿다

旱魃被害를直面한農村의喜消息

種子의送料無料!

四十有餘年의歷史가잇고信用이絕對多大한都賣貿易業의本店이旱魃의農村을救助코자優良種子를小賣입니다原價로販賣하고자합니다

●注文은全部先金送料荷造費無料

品名		價格
●支那原產芝罘白菜	升 / 合	[illegible]
●〃包頭連白菜	升 / 合	[illegible]
●宮重大根	升 / 合	[illegible]
●京城大根	升 / 合	[illegible]
●京城白菜	升 / 合	[illegible]
●朝鮮大根	升 / 合	[illegible]
●開城白菜	升 / 合	[illegible]

▼種子라면무엇이든지具備
▼都賣商報는每月一回以上發行

京城府鍾路六丁目(東大門前)
種苗問屋 興農商會本店
振替京城一九七八六・電話光二四〇六

少年 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 高尙、愉快한業務(事務簡易) 月收多大、略歷記入葉書申込 自宅勤務可能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高級發動機
バ バ

大日本岡山市島田町 馬場工作所

雨衣都散賣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다—준비되엿습니까雨季는일로부터올시다
市內는電話로서만注文하시면配達하며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防水布・シート防水布 [illegible]
朝鮮防水布製所 京城光熙町外新堂町 電話本局②一〇七三 振替京城五三七八番 (定價表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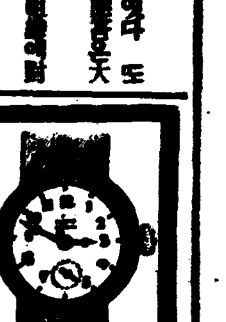
最强力殺虫劑 特許
インピレス (蠅必立死)

여름의强敵 害虫무찌 一掃시켜라!
[illegible]

佛P・J박코超特作映畫 전、원스탄 監督 잔、리미유라 主演
盛粧의밤
宿命的戀愛에그靑年이죽엄을선택할때까지、이것은서광의거룩과슬픔의兩極端을보여준傑作
◆獨逸르비스超特作映畫 푸란츠이카랄主演
페로니카의靑春日記
꼿다발가치어엽분[illegible]의日記랍니다、十七歲의[illegible]가삼이뛰게되는[illegible]이야기
◆日活超特作映畫
大學を出た若旦那
―(次週封切)―
[illegible]
映畫殿堂全鮮第一 團成社

廿八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一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無料說明
浪花館
上映時間表 [illegible]
▲鄕愁 [illegible]
▲文七元結 [illegible]
▲下田夜曲 [illegible]

特別景品附
住所氏名入・葉書封筒用
ゴム印進呈
(但五圓以上ノ品ニ限ル)



クロム側16型懷中時計

	石	市價	特價
イ	7石	7圓ノ品	2.50
ロ	7石	9圓ノ品	3.75
ハ	7石	15圓ノ品	5.50
ニ	7石	18圓ノ品	7.00
ホ	10石	9圓ノ品	5.00
ヘ	10石	13圓ノ品	6.05
ト	10石	17圓ノ品	7.95
チ	10石	20圓ノ品	9.50
リ	15石	19圓ノ品	7.80
ヌ	15石	23圓ノ品	8.90
ル	15石	27圓ノ品	9.55
ヲ	15石	30圓ノ品	13.50

クロム側16型懷中ウォルサム

	石	市價	特價
ワ	7石	25圓ノ品	7.55
カ	7石	29圓ノ品	9.00
ヨ	7石	33圓ノ品	11.50
タ	7石	38圓ノ品	11.95
レ	15石	40圓ノ品	15.90
ソ	15石	45圓ノ品	20.60
ツ	15石	55圓ノ品	23.50
ネ	15石	79圓ノ品	32.75
ナ	17石	90圓ノ品	33.00

クローム側腕卷時計

型		石	市價	特價
11型	イ	7石	7圓ノ品	2.70
11型	ロ	7石	9圓ノ品	3.95
11型	ハ	7石	13圓ノ品	4.90
11型	ニ	7石	19圓ノ品	8.50
10型	イ	7石	8圓ノ品	4.20
10型	ロ	7石	9圓ノ品	5.90
10型	ハ	15石	12圓ノ品	6.50
10型	ニ	15石	19圓ノ品	8.75
9型	イ	7石	9圓ノ品	5.80
9型	ロ	7石	14圓ノ品	6.70
9型	ハ	10石	17圓ノ品	7.90
9型	ニ	10石	19圓ノ品	9.80
9型	ホ	15石	18圓ノ品	6.90
9型	ヘ	15石	19圓ノ品	8.35
9型	ト	15石	23圓ノ品	9.50
9型	チ	15石	27圓ノ品	13.45
8型	イ	7石入	10圓ノ品	6.50
8型	ロ	7石入	12圓ノ品	7.90
8型	ハ	10石	15圓ノ品	8.75
8型	ニ	10石	17圓ノ品	9.30
8型	ホ	15石	13圓ノ品	7.50
8型	ヘ	15石	16圓ノ品	9.10

必ず三割以上內金を要し 殘金は振替か小爲替にて願升
前金注文の方は送料弊社負擔 代引の方は送料國十錢御負擔願升
天賞堂 東京淺草松葉町二十二 振替東京六六八五七番

喜悲뒤범벅의降雨!
旱騷끄레各地水亂

道內處處에水害
府內外는浸水騷動
各河川刻刻으로增水

新義州

【新義州】수란스(雨)으로신의주부내외에 일시대 소동을 이르키고 깨끄시 개이엿든 일기는 이십사일부터 다시금 『비』가 나리기 시작하야 부내 운정정(雲井町) 하정(霞町) 미륵동(彌勒洞) 우외 마전동(麻田町)인 포룡(浦龍)에 다시수백호(戶)의 침수가옥을 내이고 압록강(鴨綠江)에도 사『미돌』의의 증수를 보이고 목하 증수중인데이십륙일아침까지 판명된 평북일대의 피해와 증수 상황은 다음과갓다

▲新義州=飛行場이浸水되여 使用休止
▲朔州=五、七〇米增水(朔州管內鴨綠江)增水中
▲泰川=一、一五〇增水(大寧江)
2、泰寧線道路는增水로交通杜絶

▲寧邊=一、淸川江、九龍江二米增水
2 龜山面、川防江〇、九米增水(一名溺死者發見)
3、寧·泰間交通杜絶
4、寧北渡船場二米增水로交通杜絶
▲北鎭=一、昌城江二米增水
2、忠淸江二米增水로橋梁流失
3、松面森林鐵道五、六台流失
▲熙川=一、熙川邑內附近淸川江二米增水
2、北面介古川 四米增水
3、西面完城川 二米增水
4、熙川、西面間交通杜絶
▲前川=禿魯江 二、七米增水(增水中)
▲昌城=五、三〇米增水(昌城管內鴨綠江)(增水中)
▲碧潼=五、五〇增水(管內鴨綠江)(增水中)

新幕地方洪水

【新幕交局電話】이십오일부터이지방에내리는호우는 드듸여홍수를보게되여 시내에잇서서 이십여호의 침수가옥을내게되고 신북、곡산(谷山)과 수안(遂安)사이는 자동차불통으로교통이 두절되엿스며 비는아직도거슬하게 나리고 수해를 우려중이다

沙村市浸水

【沙村】황주부사평군 일대에는 한발로서로 농작물이 적지안케 에지내다가 지난이십오일부터비가오기시작하야 작일은 일주야를 줄곳쏘다저서 황주부사읍내에는 일대홍수로 소방대비상소집과 시내 중심지대의 활동으로 겨우침수되는가옥을 구원하엿다하며 서산、꼬전포(浦)에도 상당히 침수가옥과 농작물에피해가 만타는데아즉까지 폭우가계속됨으로 민간에 인심이 흉흉하다

西署管內水害

시내죽첨정(竹添町)일정목 이십륙번지 표문보(表文甫)(一二)의 집의 온돌이 이십륙일 여러날동안 퍼붓 비로인하야 침수되는동시에 그만주저안고말어 실내에잇든 가구와의복등이 물에잠기는등에 일시는 대소동을이르켯는데 손해액이 약이백원이라고한다

黃海線開通

불통중이든 황해선상해(上海)서중(西中)간은 이십팔일 제부터 도로가부흥개시하야 오후일시반에 개통이엿는데 장수산(長壽山)미력(未力)간 상해그정시그키릇부근철로등이 도이십팔일아츰에 약십오시경가량 불되되야 렬차가도 불통되엿다 정오까지에는 개통될모양이다

少女暴行魔
有罪公判에廻付

【大田】여섯살먹은 소녀를 송림중에데리고가서 야수와가티 성욕을만족케우고 률(行)로때려

河川汎濫으로
各地交通杜絶
伊川郡一帶의水亂

【伊川】강원도이천지방은 지난 이십삼일밤부터 비가나리기 시작하야 밤녀면 이천수리조합저수지는 지난이십륙일오후륙시에만수면이실험적이 되엿스며 림진강상류 고성진(古城津)도선장이 증수로인하야 배를건널수가업서 이천금산의천간 (伊川葛山澐泉間)이천지석시간(伊川支石市間)자동차가 불통되고 이천가려주간(伊川佳麗洲間) 이천지하간(伊川支下間)우편물도제송치못하게되엿다 더욱허비로인하야 이인 천곡천간(伊川金川間)의이동도로 강화남천정선(金化南川店線)의 이천서면산정리 (伊川西面山岾里)의 각이 이십간가량 문허저서 이천시변리간 (伊川市邊里間)이천안협간(伊川安峽間)의 자동차가 불통되야 당분간개통의 여망이업다고하며 이십칠일오전열시까지 금번우량은 이백이십사미리로 농작물에는 지나치게 왓스며 도로에 장마의홍수를우려중이라고한다

遂源江增水
乘合定期線運轉休止

【遂川】평남덕천지방에는 오래동안 비가오지안허 인심이 불안하든차에 지난 이십이일부터 나리는비는 계속하여 이십륙일에는 요원강(遂源江)수가 평상시보다 이메一톨이나 증수(增水)하야 북창경유(北倉經由) 평양행(平壤行) (승합(乘合)자동차와 맹산행 녕원행 (승합자동차)의 각정기선이 전부두절(杜絶)되엿스며 아직도 비는계속하여 나리고잇다한다

喜雨一束

甕津

지난이십사일 새벽부터 내리는비는 오다마다하고 좍하지는못햇스나 이십륙일부터는 폭우로 시원시원히 내리고잇다 아프로도 얼마가을는지 모르나 이미이앙된것은만족하지만 아직까지 못한것은멀어 시기가느젓슴으로 아모리 비가 내린다하여도 희망이업다한다

高原

고원지방에서는 삼개월여를 한발이계속하여유자이래의 처음이라고원지방가에서는 임삼이극도로 공황하든중에 지난이십삼일부터내리기시작한비(雨)가 상금계속중이나 너무도심하한발이엇슴으로 아직도 흡족치는못하나 경작(田畓)에는 대흉을 예상하고 미이앙(未移秧)은 아직도 수량이 적당치못하다는데 이앙하려도 희망은 업다고 일반농가에서는 일희일비중으로 잇다고한다

舍人

두보와가리평남순천군지방일대에는 사인장을 필두로하야 이앙도못하여보고 묻지만볼짝나는번에는느그래로 흠는 천수답은 말할것도업고 몽만키로자랑하든 자산수리조합(慈山水組)에서도、이미、단수한지가、근일경에나、될하는데면이라 만족의기갈은 절정으로드러간것이므로 갈지마다 줄차를 기우제로야단법석이엿고 꼭가는 날로폭등하야가는형세이든바지난 이십륙일오후 아홉시부터 나리기시작한 일적천금의 자우는 잇는날인 이십칠일오후부터 변하야 의연히계속폭주하고 잇는동인바 이기리 비가오기만쉬 변치울로써 이미 고사에직면난그야말로 본격적호우(豪雨)로 행흔오곡은 소생할우량이 흡족하다고 첫투한듯 눈물도 이제는퍼게되엿고 절절히차현든 수운은 일소되여 농민의환경은되고잇다하는데 계속하야 퍼붓는 「자우에 깃버날뛰는이라한다

順安

마룡터로마른고잇든 각종농작물에 한방울의생명수가리 귀한 감우(甘雨)는 지난이십오일밤부터 정원일대에 고루고루쏘다저 수십해차엿든농민들의수미를 겨우펼릿하고 잇는바 그후또개이며 흘이며하는날로변하야 조금식내리기를 계속하는다 그것이변하야 감우가 폭우일밤부터 도계속하야 이십오일부터 일기가 일반농민들은 얼굴에 희색이떠돌고잇다고한다

延安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일대에 한발은 이개월간을 두고 심오까지 계속한 우량은 세식하미리가되엿다는데 이앙조차 불가망이라 마친구에 떨하는 연백주민의 마음을 조리게하든비는 지난이십삼일부터 시작하야 이십륙일까지 계속한 우량은 세식쯤미리의 심산계를보에대한 수량에는 떡만 적시여슬뿐이고 연백평야(延白平野)의 관개용 물로 이미이앙된 삼만여정보의 시시에도 대한 수가되야 정변하다 한전에에는 감우가 되야 정변하다고한다

伊川

오래동안 한발로인하야 일반농가의 인심이 극도로 불안중에잇던바 지난 이십사일밤부터 일제적천금의 비가나려 이십사일오전열시까지 이십미리구분 이십오일 사십삼미리사분 이십륙일 오시칠미리의 분으로 비는 아직도나리고잇서 기다리든비는 이십륙일아친까지 일매이십미리나 나렷슴으로 농사에는 충분한 형편이고 말녕든이천수리조합 (伊川水組)저수지는 이십륙일에 신위의 물이잇서 당시가망하든 천수답도 물졋슬바 일반농가에서는 한발로인하야 농사를 단염까지하고 잇든형편이 이번비로 인하야 자못위안을 늣기게 되엿다고한다

京仁、咸南에大雨
降雨는며칠동안繼續
◇—仁川觀測所 發表

【仁川】줄곳가는듯하엿스나 지난이십사일부터 쏘다지는비는 증부조선이북으로 연일 나리여서 서조선지방에는 홍수까지 나게되며 한화(旱禍)는 완전히일소되고 풍족한 비에싸인 농촌은 활홍의소리가 넘치는데 기압배치는 어제와가티 청도(靑島)남단과 만주(滿洲)중부에잇는 저기압이 아죽도 움지기지아니하야 며칠간 더비가 오리라하며 경인(京仁)지방과 함남(咸南)등지에는 큰비가올듯하다는데 본격적(本格的)으로 장마시고에뜨리갓슴으로 혹은 눗장마가 크게질는지도 모른다한다

市內某鑛業會社에
百萬圓金密輸事件
本町署서容疑者檢擧取調中

일개월전부터 시내본정서(本町署)에서는 황금정(黃金町)이정목모광업회사 관계자 도변모(渡邊某)고목모(高木某)좌등모(佐藤某)장모(張某)백모(白某) 리모(李某)등 여섯사람을 금밀수출혐의로 인치하고 취조중이라한은 방시 긔보한바이어니와 그후 취조는 점점준열한 그세를보이고잇든바 그때는이미 그들의 교묘한 범행수단으로말미암아 물적증거는 거이다 연멸상태를 보이여 취조는 일시중지상태에 빠저 그서에서는 초조한 태도로서 사방으로 방증(傍證)을 수집하는 일편 그회사 회계 장부일체를 압수 하야세밀한 수짜적 검토를 밤을새여 가면서 계속하고잇든중 수일전에 움지길수업는 정확한 증거를 엇게되자 취조형사들도 기뻐에 날뛰며 그증거를 중심으로 재차관계자 일동을 엄중히 취조중이엿든바 이십칠일밤드되여 김밀수출사실을 대개시인 한모양이라한다 이로 말미아마 취조는 일단 진전 되여 근일중에그전모가 나타나리라하는데 그들은 작년십일월경부터 약륙개월동안에 약백이삼십만원의 금괴를동경(東京)에잇는본점(本店)으로 수송하야 그곳에서 밀수출한것이라한다 더욱 이사건은 현재동경시청(警視廳)에서 취조중인 백팔십만원금괴밀수출사건과 밀접한관계가잇다하야 사건의 진전여하가 대단주목되고잇다 그런데 현재의상태로는 이사건은계기로 타방면에 걸거가확대될것갓지는 안타고한다

구역질나는 賣春
不良抱主를 召喚코取調

긔보=서대문서사법계에서 일망타진하여 방금 취조중이든리상윤(李相允)(一二)등이십여명소녀절도단은 그취조에따라 듯기에도 끔찍한나쁜사실이들어나게되엿다 죽그들의 비밀가 성북(李成玉)(一三) 리성옥(李成玉)(一三) 리성수(李成守)내외주점(內外酒店) 전고기 김(金)(一三) 최용진 그들에게 술과 우음을사고 그들이 그(金)죄주인의 소위도 용서할수업서이십팔일 경찰에서는 전고기 주인과작부들을 전부호출하야 방금엄중취조중이다

中央線工事를
交通遮斷騷動

이십칠일 오전열한시경부터 철도국에는 부내청량정(淸凉町)과 전농정(典農町) 등세동리 대표로 김성근(金聖根)、리창업(李昌業)、신정위삼랑(新井爲三郞)、목원방태랑(木原芳太郎)씨등 의외면이의 대표가 차저와서중앙선건설사무소(中央線建設事務所) 소장 적사(赤司)씨를면회하고 지서간에 배치여 진정이 잇섯다는데 이번 대회로는 마즈막 회의가 되리라고한다

西大門署管內에
赤痢患者頻發
防疫對策을講究中

장마철을따라서 서대문서관내에는 정령병들이 적리(赤痢)가 가장만히 류행하고잇다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 이백구십번지 삼무호에사는 일본내지인봉우의명자(鵜飼明子)(一七)와 동정삼정목오십오번지에사는 고교문일정(高橋文一)(四) 그리고 부암정(付岩町)구십사번지에사는 이억시 일본내지인대천(大川)『요시에』(三)세명은 이십륙일전부 적리(赤痢)로진단되여 순화원(順化院)과전중원(田中丸)병원에 수용되엿다 이가리 관내에 례별에업는 적리환자가 속출함에비추어 소관서에로 서에서는 명이십 구일부터이틀간 관내에게주하는 과자、두부、제소 장사등 일천이백여명의 소화기계(消化器系)전염병 병원체(病原體)보유자검사를시행하야 전염병방지에대한 대책을강구하리라고한다 영다는 말만드러도 전률할사건 범(犯)이라는 자가 뒤산에 데리고가서 폭행한뒤에 현장에서 달아난 사건 순사、송모(宋某)의딸 숙이 (假名)(四)를 대전욱정(大田旭町) 춘일정(春日町)사정목에사는 정영근(鄭永根)은 우금대전지청예심계에 회부되야 예심판사에게 엄중취조를 받든바 이제야예심이종결되야 유죄공판에부치게되엿다 그리고 고한다

朝鮮語標準語
査定第三讀會
來卅日부터兩日間
仁川府牛角里에서開催

부내 화동(花洞)에잇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주최인 조선어 표준어사정위원회 (朝鮮語標準語査定委員會)는 제三독회를 이달삼십일 오전 열시부터 어동안 인천부우각리 인천공립보통학교(仁川公立普通學校)에서 연다고한다 이회는 작년팔월에 우이동에서 제一독회를열엇고 그동안 수십번의 수정위원회를 열엇스며 이번 대회로는 마즈막 회의가 되리라고한다 【開城】이십륙일오전여덜시 평운(評判) 북구철도의리연 조선개발주식회사(朝鮮開發株式會社) 김상리(金相里) 김상섭사사무소 운전수 청수향인(淸水恒人)(二七)은 정주(定州)읍내모일본내지인 로리집어기『스미코』와 함께 전차는약을 먹고 자궁침에서 전사를 하엿다한다

運轉手情死

朝鮮民曆改正
明年부터實施
새로十五項을挿入

조선민력의 개정에 대하야는 그동안 총독부학무국에서 조사연구중이든바 최근에 완전히 성안이 되엇다는데 이것을 명년부터 실시할터이라한다 그런데 성안된 내용을보면다음과갓다
一、민력을 략력(略曆)이라개칭함
一、국긔게양에 관한사항을가한다
一、축제일을적색국긔로표시한다
一、조선신궁과 정국(靖國)신사제를그입한다
一、각종기념일을추가한다
一、일출입(日出入)과 일남중(日南中)을긔입한다
一、월출입(月出入)과 간만조(干滿潮)를긔입한다
一、어업과 렵업에 관한사항을가한다
一、월령(月齡)을가한다
一、오행(五行)이십팔숙(二十八宿)십이직(十二直)구궁(九宮)등을제외한다
一、평균기온 강우량(降雨量)평균습도(濕度)등을가한다
一、종래의민력중 제일미례게재한사항을삭제할것
一、중요도시구개소에관한 식표(食表)를이을것
一、음양력대조표를증가할것
一、지구절(地久節)절분(節分)피안(彼岸)를신할야 어백십일을부가할것
이후매지를하야 오행신이직 이외의 사항은 그대로 실시할것은 한국풍시방조으리가 이엿다 등 일본이후에 간날(干涉) 편날(便覽) 로긔재되는것은 이십팔숙구궁과길흉에사항은 일체삭제될것이엿다 령만 마조어서 각종긔념일 국긔게양에 관한것 음양력 천체긔상관측에 관한것 조표등이라한다

"大將노름"에
身勢亡친者
제것훔처쓰고警察에

시내 신설정(新設町)백삼십이번지의 백록심일호 김원규(金元奎)(一二)는 수일전부터 사문서위조(私文書僞造)사긔(詐欺)혐의로 시내 본정서에 인치되여 취조를 밧는중이다

그는 자긔아버지 김헌철(金顯哲)의 명의로 양주군(楊州郡)에 잇는 약륙천여평의 토지를 저당잡히고 빗내려고하야 아버지의 인감 이전등의증을 위조하야 다옥정(茶屋町)오십륙번지김동옥(金東玉)에게서 사천원을채용하려다가 그만 실패에도라가고 이에 그것으로 황금정(黃金町)칠정목백삼십사번지 방봉춘(朴鳳春)에게서 이백칠십원을 채용하야 유흥에 소비하엿다한다 이외에도 여러곳에서 사긔하려다가 실패한것이 수건이나 잇스며 그는 원래 난봉으로그에배후에는 현재미체포의 영흥군 진평면(永興郡鎭坪面) 출생의 박형철(朴炯喆)의 세사람이 책동하야 김원규를 돌려먹으려든사실까지 폭로되엿다한다

그는 오십만원 약산재적으로 일본으로서는 미증유의 큰파란을이르킬것이라고 관중되고잇다

赴戰長津間
自動車道路破損

이십칠일아침부터 퍼붓는비로말미암아 부전산장(赴戰山莊)과장진산장(長津山莊)사이의 자동차길에 물이드러서 자동차가통하지못하게되엿다 현재형편을보아서는 언제회복될는지 예측이서지안는다

乘合自動車顚覆
乘客七名重輕傷
求禮—順天間慘事

【求禮】지난이십륙일 오후한시오십분경 순천군 황전면봉덕리(順天郡黃田面鳳德里)아페서 순천서 구례로오든 승합자동차가전복되여 칠인의 승객이전부 부상되엿는데 그중에서 가장위험한중상을 당한사람은 구례군산동면외산리(求禮郡山洞面外山里) 오정섭(吳正燮)씨의 모친김씨(金氏)(七〇)로인과 및그의 외손녀로인 전복된 자동차속에서몸을 만히커고 잇시는 긔절까지되엿섯는데 방금구례공립의원(有隣醫院)에서 입원치료중이라하며 전복된원인은 운전수 김창선(金昌善)의 등도(酒醉)이라하며 치료중이라하며 피해를 본이는 그사람뿐이거나 아죽확실치못하다고하며 일반은 동자동차부의 승객에대한 처임문제여하를 주시하다고한다

애독
ネオ·スピロチン
大同製藥社
京城南大門通

看東地方洪水

【看東】중화군간동(中和郡看東)지방에도 한발의 액을 면치못하야 논(畓)과 밧(田)의 곡초의 고사는 말로하고 울로수의 부족과 목초(牧草)까지업서 농우(農牛)갓든 장(場)(市日)마다 락되여 관민합동으로 흉흉한민심을 진정시켜오든중 지난 이십일밤부터 내리기시작한 호우는 이십칠일새벽까지 계속하야 동오정한시경 간동구장리일대는 와연수국화하야 침수가옥이 이십여호에 달하며 가축의 뮤실등 벼소동이 일어나지 동주재소에서는 소방조원총동원시겨 어린이와 로인들은 안전지대인 지석리(支石里)로 피난시기며 가산을 보충하는동시 증수량은 몽세시경부터 점점감수되여 우선은안심되나 아죽천후(天候)로보아 다시 강우의염려가만타하며 농작물의 피해도 상당히 만흘것이라고한다

運動競技

中等對校陸上에
卄七校가參加

조선체육회 육상경기부주최의 제三회전조선 중등학교 육상경기대회는 八월一、二양일간경성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는바 참가교는 전조선에서 이십칠교가 된다는데 참가선수는 약三백명이고 이번 대회에 참가할 학교명은 다음과갓다
徽文高普、培材高普、全州高普、光成高普、第一高普、春川高普、養正高普、第二高普、晋州高普、公州高普、平壤高普、養正高普、京城師範、龍山中學、鏡城農業、春川農業、光州中學、大田中學、仁川商業、群山中學、釜山中學、平壤農業、麗水中學、京城商業、京工城業、義州農業、京城中學

올림픽籠球代表，
匈牙利팀을擊破

【부다베스트二十七日發同盟】遠征中의올림픽籠球代表팀은 二十七日匈牙利一、二兩軍을編成하야 對戰한바 다음과가튼 成績으로 大勝하엿다
日本第一軍(33…28)匈牙利第一軍
日本第二軍(41…15)匈牙利第二軍

甲子園中等野球
中部決勝順延

大朝主催의 第二十二回甲子園中等學校野球大會 朝鮮中部第一次豫選決勝戰인 仁川商業對京城師範戰은 二十八日午後二時부터 京城球場에서 擧行할豫定이든바 降雨로因하야 明二十九日로 順延하엿다

對廣島高女排球戰
第一日經過

朝鮮排球協會主催의 廣島高女排球部招聘 第二日은 二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龍山鐵道코-트에서 다음과가티 三試合을 行한바 모다 勝捷하엿는데 同部는 京城에서 六戰六勝으로 全勝하엿다
廣島高女2(21 21…9 15)0第二高女
廣島高女2(21 21 19…18 11 21)1鐵道局팀

軟式野球準決勝
遞和、商銀各勝

全朝鮮都式對抗軟式野球中央豫選準決勝戰은 二十七日午後三時半부터龍山球場에서 擧行한바 遞和會、商銀兩軍이勝捷하야 決勝戰에드러갓다
遞和 0 1 0 0 0 0 0 0 0 — 1
專賣 0 0 0 0 0 0 0 0 0 — 0
FD 0 2 0 0 0 0 0 0 0
商銀 2 0 0 0 1 0 A — 3
A…2 0…1

名士만모힌伊代表軍

【伯林二十五日發同盟】伊太利의 『우크텔뜨』皇太子殿下는 伯林올림픽大會에 合臨하실터임으로 벌서부터 伯林市民은 歡迎準備에 奔忙中이다 그러고 第二皇女『마프알다』內親王도 父君『엠마』公과함께 伯林에 來臨케되여 임이 御滯在의 手續까지 마치시엇다

一方 選手團中에는 首相뭇소리-니氏의빗토리오의브루노 兩皇子는 『헨드볼·팀』의 『멤버-』로參加하얏스며 前回優勝한파아시스트黨 副黨記長으로서有名한『아-르·모리지』氏도 이번伯林大會에 再次參加하기로되엿다

除名은取消햇스나
자렛트夫人出場不能

【伯林二十五日發同盟】除名問題를 惹起한 『에리나·홀·자렛트』夫人은 其後美國蹴球協會에서 除名을 取消하엿다한다 그러나 同夫人의 美國競泳의 『연습』에 依하야 이미取消 한다의 『홈』으로 依하야 再次『연』출場은 不可能케되어 出場은 드되어 斷念하지안을수 없게되엿다

人生最大의悲劇

父母를차저五十年哀切한아들의呼訴
本人의生父李某는本人四歲時(距今四十七年)에身邊事情으로本人을버리고不知去處가되신後故崔某氏의拔養을밧어崔姓行世를于今하엿오는바本人十三歲時에養父崔氏의使命이라後事를맛기고본즉天倫의父母를바라는本人의生父母의消息을알랴고죽을때까지에여러방면으로알어보앗스나消息이없사온바本人은 不知어쩌한사라인지父母님의消息을알고자하오니 萬若諸君子 중에 本人生父母의消息을아시는분게서는 京城府光化門通○번지朝鮮日報社로通知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滿洲國奉天大和町一七 崔振憲 崔吉泳 朝鮮新聞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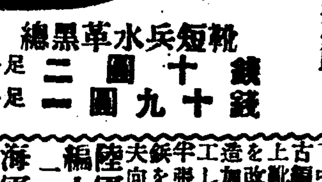
海軍省拂下品の大安賣

■海軍省拂下防水布外套(黑色中古品) 一等品一着に付二圓九十錢
本品は現在海軍で使用するも中古品にて
黑厚ゴム引綿一重

■鐵道省拂下防水布外套 一圓八十錢
防水着用に最も安全品也

◎海軍拂下水兵短靴
本品は海軍の拂下水兵短靴を改造した中古品にて
新品半張革を堅牢無比

◎軍隊拂下改造編上靴



總黑革水兵短靴
A品一足 二圓十錢
B品一足 一圓九十錢

本品は軍隊拂下中古靴に加工改造を施し新革張、獨逸打込、丈夫實用品向

陸軍拂下改造編上靴(茶利革) 一足二圓二十錢
海軍陸戰隊用黑革編上靴 一足二圓五十錢

業者로注文하시면一品이라도小包代金引換으로發送함

卸問屋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松山合名會社
電話本六二二九番·振替名古屋一一五一番

未婚青年에警告
離婚數의七割三分은
性的缺陷이原因이다

◇最近米國雜誌에 어떤 統計學者가『離婚數의 七割三分까지는 性的缺陷이 原因이다』라고發表하엿다。但其中에 男女間 어느쪽에 責任이만흔가는 詳細치못하다。이것은 外國統計로서、우리나라의 實情에 마질는지는疑問이나、大槪性問題에 關하야는 洋의 東西로는 大差가업슬것이다。

◇東洋古代道德에도、當時婦道에 背反될만한 엄청난 例를보히엇다。그有名한『女大學』中에三年을 同居하고도애기가 업거든헤여지라는고 하엿다。勿論애기를 낫지못하는 原因이女子에 만잇다고라할것이못되는것은 當時에도알엇슬것이므로、缺局男子의性的缺陷에 依한不姙에 境遇도헤어지라는 意味가된다。

◇敢히女大學의가르침을말지안튼라도、近代婦人은 漸漸個人主義—享樂에흐르러서、結婚後라도집을뛰여나는때나 滿田할만한男氣는? 예전부터마칭으로갓고잇는것이므로이것도 時流라어찌할비가업는것이다 特히未婚靑年諸君이여! 이意味에잇서서、먼저自己自身의性態에 缺陷有無를調查할必要가잇지안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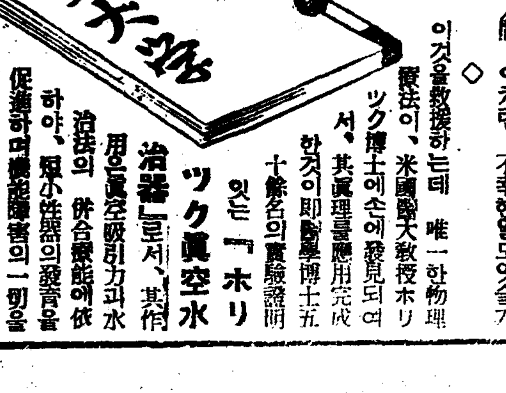
◇世上 男子로서、性器發育不全(短小彎曲)機能障害(陰萎、早漏遺精、夢精)로因하야 完全한性○을이루지못하는사람이잇다。그때문에안해가 실혀하며、裏에게背斥을밧고안타가운歲月을보낼뿐아니라、身體는病弱되고、精神的으로도變化를밧어서 變質者가되는고로、他人에게背斥을밧어서、마츰내立身成功의길이못치게되는人間、이처럼 不幸한일도잇슬가

◇이것을救援하는데 唯一한物理療法이、米國醫大敎授ホリツク博士에손에發見되여서、其眞理를應用完成한것이即醫學博士十五十餘名의實驗證明잇는「ホリツク眞空水治器」로서、其作用은眞空吸引力과冷水治法의 併合機能에依하야、短小性器의發育을促進하며機能障害의一切을復活케하는效果가잇다

◇本器는小型輕便、自宅로秘密히一日一回十分間의治療로足하다나히젊으신分일수록效果迅速、老人은一日이라도速히使用하야性器復活을圖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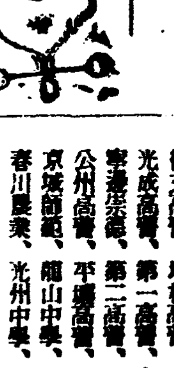
定價五圓(送料廿五錢) 東京市芝區濱松町一八 東京新聞社法研究所 (注文次第拂込함) 東京市芝區(代金引換는二十五錢增) 振替東京五

◇業者로申込次第 圖入說明書『性의新知識』을無料進呈하오니 一筆하시요



本社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天氣子報



槪況 弱한低氣壓은 黃海道와 中國揚子江下流에잇서서 不連續線을보이며 北東으로進行中이다 高氣壓은 日本本州의南海上으로부터 南鮮에퍼저 고잇스며 滿洲方面은 氣壓이얏다 滿洲는흐리며 朝鮮은中部와 北東岸은 비가오고 南部地方은 개이다 日本內地는 西部地方은맑고 關東地方以北은 흐리고잇다 明日도日氣는 조치못할러이다

報豫 오늘밤 京城地方은흐리며 때때비가온다 明日도가트며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三〇度一 最低 二三度七
今朝 最低 二四度五 正午 二四度一

特報 ▲第一區沿岸海部는 南西風이强할터이며 降雨가잇다 第一區沿海部 昨日特報한注意事項을 全部解消함

各地天氣(今日午前六時現在)

中江鎭 曇	·大邱 晴		
新義州 晴	釜山 晴		
平壤 曇	下關 晴		
仁川 雨	大阪 曇		
京城 雨	東京 晴		
全州 晴	天津 晴		
木浦 曇	靑島 雨		
群山 晴	上海 曇		
雄基 雨	新京 雨		
城津 雨	奉天 曇		
元山 雨	營口 曇		
江陵 晴	大連 晴		

結核性體質者
衰弱、貧血患者
療養의必需劑

다른榮養劑에比하야
優秀한獨自的作用

ポリタミン은 牛乳蛋白을 原料로하야、胃腸消化와함께 酵素로써 消化된것이며 血液原、筋肉素、發育素、食慾素、活力素、호르몬素等各種의 有要아미노酸을 豐富히 含有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微量의아미노酸을 包含한것이나、原料그대로의 粗雜한 未消化性榮養劑와는 그本質에잇서서 全然 딴것입니다。

(1) 消化를 要치안음으로、胃腸이 弱한분에 榮養價値가 큽니다。
(2) 細胞를賦活하여、新陳代謝를 良好케하며、抗病力을 增進합니다。
(3) 消化液의分泌을促進하며、食慾을增進하며、胃腸을튼튼케합니다。

補血滋養强壯
高級아미노酸綜合製劑

四百五十名醫學博士の實驗推奬

포리타민
ポリタミン

自然治癒力을强盛하게

어떠한病을 治療함에도 우리의 身體에 따르는病原을 익길힘——을無視하여서는決코 完全한效果는 期待키 어렵습니다。

特히 肺結核患者와 呼吸器가弱한 腺病質의所謂『結核性體質者』와 衰弱・貧血患者에는 이런天賦의힘을 튼튼케하는것이 무엇보다 重要합니다。이것의活用은 鬪病의 要訣입니다。그러면 이런힘을 增進식힘에는 어떠케하는것이 조흘가? 그에는 榮養의充實에 잇슬뿐입니다。

體蛋白의補給이急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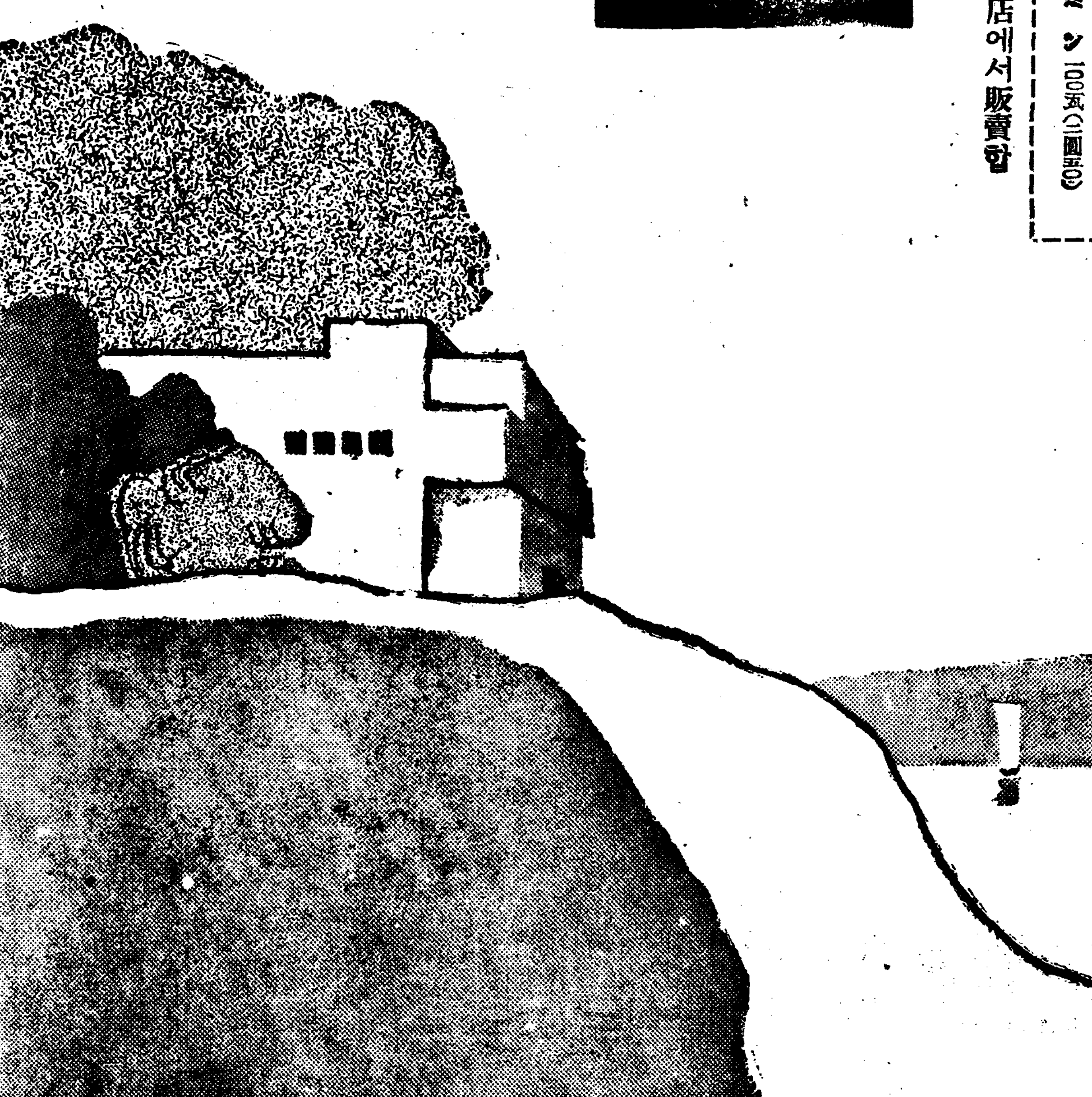
一般에 肺結核其他의 慢性病患者에잇서 가장重要한榮養素는、血液과筋肉의 構成原인 蛋白質이어서、이것의不足은 當然衰弱을招來、自然治癒力의 減退를招來하게됩니다。牛肉과 鷄卵等의蛋白質의 推奬되는 理由도 玆에잇지만 蛋白質은 그대로榮養이 되는것이아니라、胃腸에서 消化되야、完全히 아미노酸이라하는 要素로 變化되지안흐면、絶對로吸收同化되지안코 따라서 消化가 나뿐분에는 蛋白質도 體成에 利用되지못합니다。

그리하야 蛋白質보다도 그消化體란 아미노酸의분에는 더욱效率이 놉흔것입니다。

ポリタミン이 結核性體質者와 諸病衰弱患者에 愛用되고잇는것도、한가지 아미노酸의 綜合製劑임으로써입니다。

衰弱、貧血、虛弱、榮養不良에	(液狀單味)ポリタミン	小瓶([illegible]) 中瓶(三圓五〇) 大瓶([illegible])
虛弱小兒、黴毒疾患、佝僂病에	ヨード・ポリタミン	
惡性貧血、神經衰弱、皮膚病에	アルゼン・ポリタミン	小瓶(一圓六〇) 中瓶(三圓六〇) 大瓶([illegible])
健胃、後衰病弱、産前産後에	キナ・ポリタミン	
肺結核、肺尖가다루、肋膜炎에	グアヤコール・ポリタミン	
小兒、婦人의病弱、携帶用에	ポリタミン錠	小瓶(一圓三〇) 大瓶(三圓)
糖尿病의 榮養料、滋養注腸에	粉末ポリタミン	一〇〇瓦(三圓五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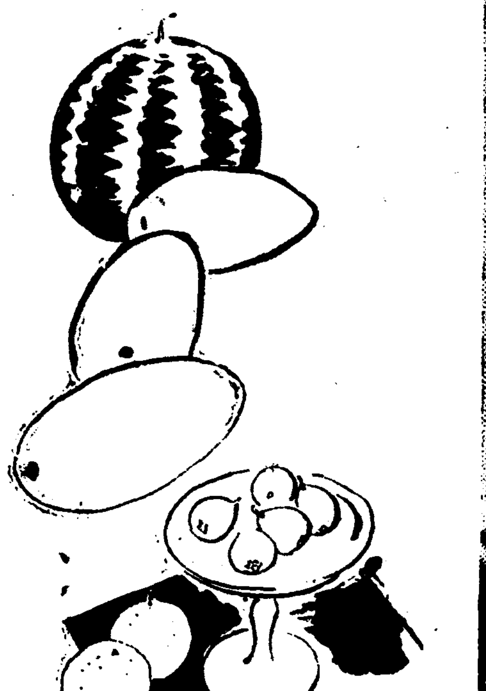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합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製造元　大阪市東淀川區堀上通　大五製藥株式會社

武田發賣品

家庭



귀여운 포모

밤에 오줌싸는애기 소금으로고치자

이런법저런법해도 모다일시적
새로발견된과학적료법

기저귀를 채우는 젓먹이도 아니요 좀더 큰 애기도 자면서 오줌을 싸노흐면 이부자리들도 안되고 어른이 귀찬키도 여간이 아닙니다。더구나 요사이가튼 장마철에는 그러지 안해도 이부자리를 잘말리지못하야 걱정인데 오줌에젓고 절어 냄새가 터지게 나는 것은 물론、제일 눅눅하야 견듸기가 어렵습니다。그러타고 그 애기를 자꾸 때리고 야단치니 소용이 잇습니까? 어떠케 하여야 고만 그버릇을 고치게 되겟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도 심려하시고 걱정하실 것이 업습니다。식염(食鹽)을 가지고 아조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이 한가지 잇습니다。

본래 오줌을 어느정도까지 제마음대로 참고누고 하게 되는 것은 만 두살이 지내면부터라야 가능한 일입니다。그 이전의 애기가자면서 오줌을 싸는 것은어떠케할 도리가 업는것입니다。또 방광결석(膀胱結石) 신우염(腎盂炎) 당뇨병(糖尿病)히스테리 전간(癲癇) 정신병(精神病)등의 병이잇거나 회 십이장충등의 긔생충이 잇서도 오줌을 참지 못 하게 됩니다。그런병이 잇는 애기네는 그병을 고치는날 자면서、오줌을싸는 버릇도 깨끗이 업서저 버립니다。그런데 아모병도 업시 자꾸 오줌을 싸는 애기네도 잇습니다。그것을 의학상에서 신경성(神經性)의 야뇨증(夜尿症)이라고하는것입니다 그런애기네는 흔히 신경질(神經質)인데 그역시 유전관계도 잇습니다。즉 지금 그애기가 오줌을싼다고 야단하시는 부모중에도 일쯕이 그분의 부모께 그런 야단을 들엇스리라는 것입니다

×

아조 녯적으로말하면 그치료법으로 어린 애기를 발가벗기어 가지고 키를 씨우어서 이웃집으로 소금을 어드러 보냇습니다。그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되 대개 그 애기를 부끄럽게 맨들어서 제스스로 교정하게 하는 것이엇슬 것입니다。그다음 근대로 와서는 최면술(催眠術)로 주사(注射)로 또는 방광에 반창고(絆創膏)를 붓치는 것으로 치료도 하고 머리를 괴고 재우는등、잘자리에 물을 먹이지 안는등、또는 아트로빈이나 스트리키닌등의 약을 먹이는 등으로 치료도 합니다。우리 애기는 이제부터 오줌을 안싼다고 자꾸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도 치료하려고 합니다。그러나 그 어떠한 치료방법이고 하나도 완전히 근치되는 방법은 업섯습니다。일시적으로는 혹 효과가 잇슬찌 모르겟지만은 며칠 지나서는 다시 도로아미타불로 밤마다 오줌을 흔건히 싸서 어른을 성가시고 귀찬케 해 놋습니다。

×

최근독갈든(?)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결과 물이나 국물을 조곰먹는다고 침은 적어지지 안는데 소금을 먹어서는 침이 적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얏습니다。그런데 가라스、그로스커라는 학자가 그학설을 듯고 그러면 오줌도 그러치 안할까 하야 자면서 오줌을싸는 열다섯 살 백이의 녀자아이를 다려다가 시험해 봣죽 아니나 다를까 그 추치이 딱 들어 마젓답니다。그래서 그 묘한 치료방법이 발견되얏습니다。무어 치료방법이라야 써 간단한 것입니다。

(아침) 보통과 가티먹이어 (점심) 그역시 보통대로 먹이어서 좃습니다。

(오후네시)실과와 국물잇는 음식과 물을 충분히 먹입니다。

(오후여섯시)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닭알이라든지를 아조심심하게 해서 될수잇는대까지 조금 먹입니다。

(오후칠시간) 생선과 가티 짠것을 먹입니다

부작용을피하자니 다소수고스럽다●

대개 물이 속에 들어가서는 네시간뒤에 도로 배설(排泄)되야 땀으로 오줌으로 나오게 됩니다。네시에 먹은 물은 여덟시쯤 되야서 방광에 하나로 남어 잇지를 안습니다。여섯시에 싱겁게 먹이는 것은 배설작용을 방해치 안하려는 것입니다。하여튼 여덜시에는 나올 수분이 다 나오고 아모것도 업시 됩니다。그때가서 짠것을 먹이어 둡니다。그 짠것으로 해서 자면서 오줌을 싸게 되지 안는 것입니다。

童話 정다운동무 (1) 金相德

복동이와 수동이는 사이조흔 동무이엿습니다。

이두동무는 압집 뒷집에서살고잇섯습니다 뒷집복동이는 부자의아들이요 압집수동이는 가난한집아들이엿습니다。

복동이와수동이는 이러케 처지는 다르지만 이세상에서 가장다정하게 서로밋고 서로도읍고 서로사랑하는 동무엿스므로 언제나 떠러지기를 실혀하엿습니다。

×

복동이는 늘수동이가 가난해서 저의가티 잘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못하고 학교에도 단히지 못함을 근심하야 엇더케든지도아주고 시픈마음은 언제나 가지고잇섯스나 부모님슬하에 잇는몸이라 마음대로 할수가 업섯습니다 그래 걱정 걱정하다가 어느날 기회로 퍼뜩하나 생각햇습니다。

×

복동이는 아버지가 옷고름에 늘차고단니시는 아주갑만흔 『오장도』를 몰래떼여서감첫습니다。칼을일허버린 아버지께서는 고만깜짝 놀라시고 원집안이 들볶어차저보앗스나 찾지를못햇습니다。

집에서는 복동이가 감추엇을줄에도 생각지안햇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어간나보다생각하고 도적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집어간사람이업는데 도적이 잇슬리 업지요。

집에서는 찻다찻다 못하고곡은 장도를 차저오는사람에게는 『일마량』을준다고 광고를 써 부첫습니다。

×

복동이는 이광고를 거리거리에 갓다붓치고 곳 수동이를차저갓습니다。

복동이는 외딴곳에서 수동이를보고 이와가티 말하엿습니다

『수동아 너도아는바와가티 우리집에서는 아버지께서 제일귀중히 여기시는『오장도』를 일허버려서 야단이낫는데 너도잘알고 잇지 그런데일때못찻고곡『일마량』까지준다고광고까지 내고차즈려 하지안니! 그런데 말이다 그칼은 내가감추엇단다。내가너를 위하야감추엇는데 저-우리집 압마루댓돌아래 흙을파고살작파무더두엇스니 네가가서 찻겟다고하여라。

그러면『마량』이 생기지 안니

저-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네가 냄새를 썩 잘맛는데어떠한것이든지 멀어버린것은 냄새를 마터차저내는데 참새조가용하니 한번불러서 차저보라고 말슴하시도록 할터이니 그때내가 불르거든 너는서슴지말고 와서 대문깐에서 부터산양개 모양으로 냄새를 맛는체하면서이리저리 저리찻다가 대스돌아래까지와서 냄새를맛는척하며 『꿀꿀거리다가 대스돌아래 흙을파고 차저내라』고복동이는 일르고 집으로갓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귀중히 여기시든 『오장도』를 일허버린지 『닷새』가지나도록 찻지를못하야 그길로 근심이 되어서 병환이나셧습니다。

×

날이갈수록 병환은 더해가지만 아모것도잡숫지를 안흐시고 의사도보지안코 아모도 아버지방에 들어오지못하게하엿습니다。그때 온집안에는 근심비치 가득히 찻습니다

복동이는 아모도 들어오지말라고한아버지방에들어갓습니다。

『저、아버지 걱정마십시요 하고노는 압집 수동이란 아해가 잇지안허요 수동이가 무엇이든지 차저내는데는 귀신가튼 재조가 잇답니다。수동이더러 와서 차저보라고 하시면 그것쯤이야 당장에 차저노흘걸요』

이말을듯고 복동아버지는 기운을어더 일혀나셧습니다。복동아버지는 그시로 곳가서 수동이를불러오라고하서서 복동이는 수동이를 불러왓습니다。

수동이는 시침이를 뚝떼고복동이말대로 대문간에서부터 코를 잇둥잇둥에 대고냄새를 맛는척하면서 찻기를시작하야 대人돌아래 까지와서 땅을파고곡은장도를차저내엿습니다。

복동아버지는 기쁨을 참지못하시고 수동이를 칭찬하시곡만량상금으로 주셧습니다。

수동이는 인제는 남과가티잘살수가잇고、공부할수가잇게되엿습니다。

그때 복동이와가티 한업이조와하엿습니다。

×

이소문이 동리안에나고 동리사람이 다알게되자 시골서울 할것업시 왼나라가다알게되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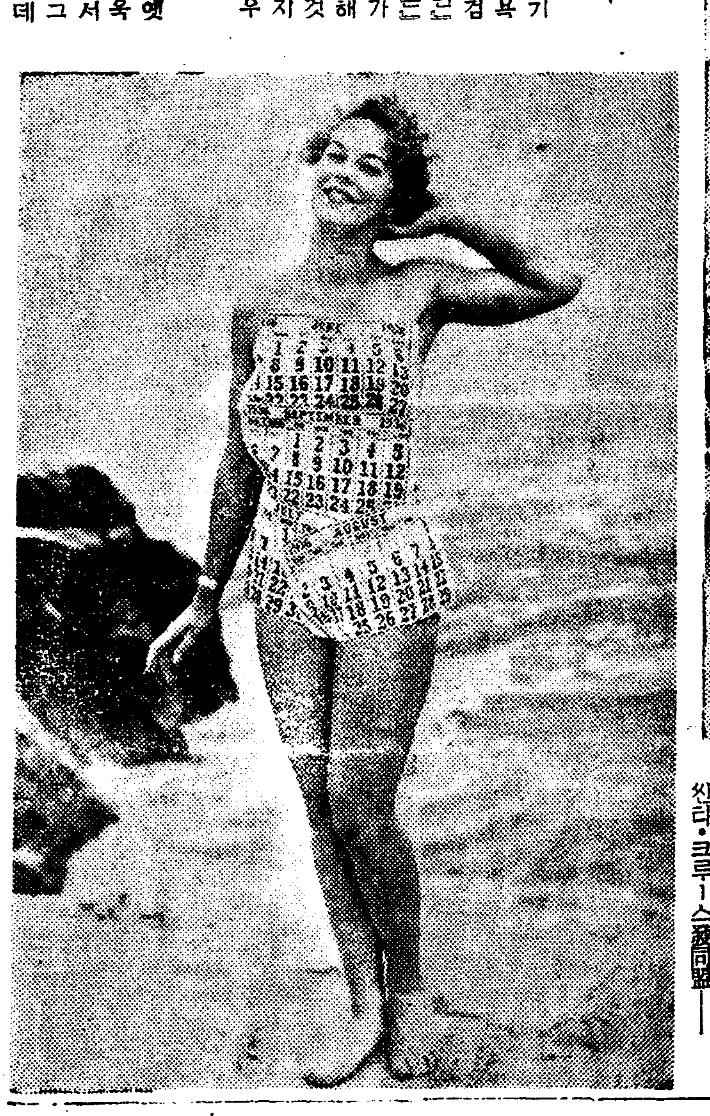
어른이나 어린애나 수동이가 귀신가튼재주꾼이라고 몰라 신통한 냄새를 잘맛는다고 모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일허버리기만하면수동이를 부르게되엿습니다。

미풍도탄식하는 해수욕복

해수욕도호나 물에 적시기에는 너무나아까운조해수욕복입니다 힌줄이죽죽진 검붉은빗이니까 상당히『모던』한것인데 사진의『젠·하일론』양과가튼 려인이 바다스가에 이것을입고 나서며면 해변의미풍(微風)도 탄식할것이다』이러케 설명서에까지 씨워잇다합니다、——헐리우드發同盟——

×

『땅훙도로파갓다』이말을 옛날의누가 내엇든고! 더욱 이유쾌한 해변생활에잇서서는 한만흔것이 빠른세월이러니까 나는 여름을 어데까지나 질겁게 나도록할테야!하면서 달력을 몸에부처 해수욕복처럼 하고나서 하로라도 무의미하게(?)지내서는 안되겟다고 떠도는 아가씨『씬차·카ト람』양입니다 다 걱정도 참팔짜지요?!——싼타·크루-스發同盟——



시체옷감은 어떠케짠것인가 ● 吳淑根

生活漫話

저는 여귀서 다시우리가입는 시체옷감의 원료에대해서 보고들은대로 들어안대로 긔록할까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입고 우리가꿈으고 맵고 짜기는 우리의옷감이 다 우리손으로만 나 할머니 어머니의 손끗마다 마듸마다 못이박이고피가 매치도록 애써지신것으로그것을입고 진사고제(進士及第)에 대과(大科)도하얏고 절므나절 느른것을 새대이 잠잠을 못자가며 짜서 다듬어서 꿰매서 려서 입혀주는 그옷을입고 변색(邊塞)에 수자리도 살앗섯답니다。시세는 변하얏습니다 박과엿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짜시는옷감은이엇슬 그처럼들이 『광카사』이나 『리온』에서오는 『뻬-지』 양복에 개화장을 즐붓말못하며 고문시험(高文試驗)이나 보통 현해탄(玄海灘)을건너갓다와서 하고 도시보모를 위하야 남편을위하야 서슴이들을 위하야 기상을해야할새며들이『하야 이힌에』『스카트』를 맴자하게거들고 딸딸한 양산을 회롯에 걸고 여름이면 해수욕장이요 겨울이면 온천으로 향락(享樂)의 도시를 떠나서 보라며 루(樓)의 도시를 떠나서 보라며

×

오늘날 문명국이요 강대국이라고 떠들썩하는 나라를 차저보렴니다。

(英太國)에서는 모다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라고합니다。에날에、에날의 우리민족은 부녀개병주의(婦女皆兵主義)엿답니다。기상이나타나 가엿(家業)을 애써(?)지키고 만호의 질호이가씨들이 밧게서 가위 딸란(?)이에 양사(養蠶)하며 에 모혀 오새(烏)를하면 방직 품직회(紡績會)를열고 희소(喜笑)를 웃으며하는 말이 일터 마는 하로밤사이에 밤버가

×

우(?)는 수고도안코 여름이 울며호른디안이지(?)(禦寒)를 입고 베폐한다지(?)의 그렇지 까지 여영돈지고야 말엇습니다。

경주서울이 육백이리며 길살을 못하양는지 기상을하나 하다가 좋빗이되고 말엇는지는 한배(?)에거니와 지꺽지(?)이러오 작로(雀路)에 어질하는 직녀성(織女星)은 견우성(牽牛星)과 사랑의전지미에 기상을 겨울의 하다가 옥황상제(玉皇上帝)께 벌을맛고 날마다밤마다 흉리는 눈물에은하수(銀河水)물이 불고 그들이냉자서록처자마가진답니다。

×

기상도 수고도안코 에라이 『화수(?)』에지나는 조선의저 백화화(百合花)야 과연야리는 아롱답다마는!。

×

앞은 뽕나무에서따고 베가 고프면 다락에서 약과부스러기나 먹음을말는것이 에날의 귀인(貴人)이요 호화자제(豪華子弟)엿답니다。그네들로 연 행복스러웟슬까요。이러케 행복에 어리워지내든 사람이 그때는 일부소수계급(小數階級)에나 불과하드니 오늘날와서는 전조선에 남녀업시 모다그네들이 되고 말앗습니다。세계에서 조선사람처럼 다정이 태평인 사람은 다시업다고하겟습니다。

좋지안은 말수 사람이 갈어주고 옷감으로판 뭉처서갓다가바치고 자동차나 활동사진은 미국사람이 만들어 올리면 마음대로의고 입고놀고 이러한팔자조흔사람이 다시어데 잇겟습닛가。

그러나 가장행복스럽고 가장귀보고실것은 이땅의사람들이 이우리가짐우리로서 엇지하야이 다지도고달프고 애달고 쓰라린가。

아는것이힘이란말은 우리에게는 오히려고비명은 힘인가 십습니다。알라는것이힘이요알어야살것입니다。저는여귀서우리의옷감이 어떠케되여나오는 가를배호려는것이엇습니다。

설싸에는 사과가직효

─모-로-씨의사과료법
사실로신기한일

근년에와서 실과가 단순한 食후전부리깜만이 되는것이아니고 기타여러가지 방면에리용이되는데 특히 사과가 병치료에잇서서 큰 효과가잇다는것은 신긔하기도하고 고맙기도한일입니다。

사과가 병에조타 특히 설사(下痢)에 효과가 잇다는것은 독일의 『모-로-』란 사람이 말한바와가티 사과의 성분의 하나인 유산(乳酸)의 작용과 사과를 욱개서 만든 사과죽(사과로 죽을 쑨것)이 아니다이 유독물(有毒物)을흡수하는 작용이 잇는까닭이라 합니다。

사과로서 설사를 고친다는 사과료법은 맨처음 『모-로-』씨가 주장한것인데 설사가 잇슬때 사과죽을먹으면 반나절되면부터 뒤보는 도수가 주러지며 열도나리고 이틀째되면 설사가끄티고 뒤가 연해집니다 그러나 설사가 끄첫다고 그대로 방심할수업스니까 이번에는 사과죽을먹는한편 우유와가튼 담백질이든 류동성식물을먹어차차로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하면 조흠니다 설사를하고난뒤의음식물은 몹시조심해야하지만 사과만잇스면 걱정될것이 업고 설사사가또다시 도질때에 또다시 사과죽을 먹으면 조흡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사과죽을먹는동안은 절대로 다른음식을 먹지말고 사과죽만 먹어야 효력이 떠강합니다。

◇

그런데 사과죽이라하니 얼른 모르실분이 계실듯한데 죽이라고했다고 사과로 죽을쑤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잘익은 사과의 껍질과 속만빼어버리고 살만 강판가튼데 욱개것이 사과죽입니다 만일 설사하는 애기가 몹시 어린 때는 사과죽을 줄수 업스니까 사과즙을 주어도 조흡니다 주는 분량은 병령에 따라가감할것이며 한살된 아이는 한번에사과한쪽、두살된아이는 한개로부터한개반 이러한정도로 하로에다섯번 사과죽을 맨드러먹이시면됩니다。

◇

지금의분량을 그람으로환산하다면 나이적은애는 한번에 백내지이백그람 좀큰애는삼백그람 이것을하로에 다섯번먹이게되니까 하로분량은 오백내지일천오백그람이되고 또사과의 개수로따저본다면 중간치로 일곱개내지 수무개가 되는셈입니다。

◇

사과를 일일히 강판에가라 욱개기가 귀찬을까하야 『위스코-트』란사람이 사과를 가루로맨드러 내는방법을 고안햇는데 이것은 집을 낸것과 효과가갓고 큰약방에서도 판다합니다 이사과가루는 분량을알기가 쉬워 우유나 미음에탈때 편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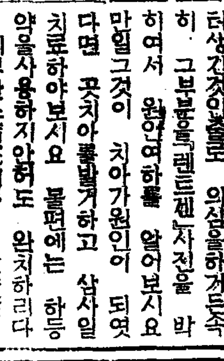
사과는 이상에말한 설사에만 조흔것이아니라 다른병에도 효력이 잇슬것이라하야 현재에연구하는 사람들이 만타합니다。

우리차지

돌아페 섬은나팔꽃、아
침에도 꼬치 다섯이나
피엇다。손人벽가튼 넙
사귀에덮혀 넝쿨이 작
구작구 뻐더올라간다。
용수철 가티 꼬부라진
파-란순이 노곤에 챙
챙 울켜 바람이 암만
분대야 떠러질 걱정은
업다。

글은사람 최한석

학의정가



불편에서고름이나

問 금년삼십일세된 남자이올시다 지금으로부터일년전에 아래바른편어금니가 쑤시기시작하더니 그후우연히바른편아래뺨이붓고 고름이나오기시작하엿습니다 그후로는조금도 아프지안코 다만고름만계속하여나옴으로 매약에조타는것은 다-붓처보고도 병원에서치료도 하여보앗습니다 그러나조곰도 고름은업서지지안코 점점더하여갑니다。무슨조흔약이잇스면 하교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淸津 一讀者)

答 당신의병에서 고름이나기 시작한것이 확실히 치아로부터 터생긴것이라고 의심을하게든즉 그부분의『렌트겐』사진을 박히여서 원인여하를 알어보시요 만일그것이 치아가원인이 되엿다면 곳치아를발거하고 삼사일치료하야보시요 불편에는 하등약을사용하지안허도 완치되리다 (세부란스病院齒科 金□□)

노인의수전人

問 생은 당년륙십삼세 이나 필그로써 업을삼는데 근년에는 수전증이 생기여 대곤란입니다 치료할방법이잇스면 지상으로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舒川李老人)

答 동맥경화증 으로 온것이면 나흘가망이업습니다 그러나 담배나술로 온것이면 나흘수잇스니 담배피우는것을 금하고술을마시지마러보십시오 수전증이 업서질것입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다리의멍우리

問 생후 삼오개월된 남아온대 지금부터 수개월전에 우연이 왼쪽 무릅우 넙적다리안쪽에 딴딴하게멍우리가섯사온데 아직까지 풀리지안사오니 엇지하면낫겟가요 하교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新京 一愛讀者)

答 질문이 모호하야 추측으로 答드립니다。좀더 자세히 적어보내주십시오 어느 때문에생기거나한 어느 그곳이 붓는가 엇잇나 키거나아니하고 한모양인가? 이런 염증(炎症)이잇다면은피하농양(皮下膿瘍)이나 근염(筋炎)일것이오 염증이업다면은 단순한 종양(腫瘍)일것입니다 (城大小川外科醫學博士金晟鎭)

新日本의傑作品
型은싱거-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奨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躍進日本!의覇者

이數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은、文字그대로의 世界的驚異를 밧고잇는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産蛇目재봉틀은 年産하게되엇습니다。

國産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 世界各國에서 맨드는것과比較하야서 조금도손색이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 살수잇는것은 勿論、只今은全世界品에比較하야 優秀한世界第一이라는定評을밧고 멀리海外各國에까지 輸出이 急速히 늘고잇습니다。

東京 大阪의 本工場에서는 年産額二百二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 只今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어잇습니다。

全鮮進出를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고잇사오니希望區域를申込하시면年賦上할 數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여드립니다。

萬國標準型 國産蛇目미싱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黃海道沙里院 李得龍 黃海道延安 朴在原 咸南惠山鎭 崔宗洙 黃海道海州 洪昌壽 全北南原 朴琪永 黃海道甕津 李政約 黃海道信川 金錫榛 平南平原 洪一錫 平南江西 朴一錫 平北鐵山 李達龍 黃海安岳 金萬文 京畿道江華 萬秉鎰 慶北金泉 高必鏞 慶南晉州 朴聖鋪 咸州郡邑 朴容律 黃海道松禾 二相鎭 京畿道水原 河基善 慶南宜寧 李泰勳 慶南昌寧 崔奉店 京畿道安城 周時元 固城 千泰世 論山 崔丸 咸南北靑 金洪 咸南吉州 梁漢 黃海道南川 全煥 京畿道開城 平山ミシン商會 忠南洪城 尹竹修 慶北榮州 李貞文 禮山 安議敬 全北全州 吳奉錦 全州 白泰書

全北扶安 金在根 全南光州 光州ミシン商會 京畿道汶山 鄭錫五 平北宣川 金榮昌 全南長興 朴必煥 江原道長箭 李尙普 咸南咸興 董信顯 江原道原州 安鍾哲 平南陽德 王錫杜 全北茂朱 安輪琇 慶南晋陽 朝鮮ミシン商會 京畿道楊州 金恩圭 江原道通川 李柒植 慶北安東 朴仁鎬 江原道襄陽 趙泰協 洪川 元秉吉 慶北榮州 郵千植 咸南端川 金元煥 黃海道谷山 李東鍾 平南鎭南浦 谷山ミシン商會 平南江西 李信德 慶南統營 世大任 江原道伊川 楊大 全南康津 朴洋順 慶北義城 黃在店 高興 呂一宇 太田 李鎭 平北新義州 金正 慶南蔚山 吳郞 京畿 長鶴 李城 黃鎭

資本金百萬圓

東京 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東京市中野區 大阪支社 大阪市東區 各地支社 名古屋、福岡、神戶、京都、廣島、其他

國産 蛇の目 미싱

商標

溪◇流◇를◇차◇저◇서……(其六)……俗離山中의瀑布

學藝

『막심●고리키ー』의 藝術에 對하야 (4)

韓雪野

그리고 一八九八年에는 眞摯한 藝術的良心으로 自己批判을 取扱한『諸君의 覺書』를쓰고 一八九九年에는『海燕은 暴風雨의 告知者다』이것은 多分히 로맨틱한 散文詩엇스나『暴風雨를 더욱 狂暴케하라』하는 꼬리키ー의 一生을 貫通하는 尖銳精力을 여기서 엿볼수잇는것이다。

『暴風雨다! 暴風雨가 鳴動한다● 雷鳴과 怒濤로서 우렁찬소리나는 바다위를 이 勇敢한 海燕은 傲然히 나라다닌다。勝利의 告知者는 絶叫한다。더욱 猛烈히 더욱 거세게 暴風雨를 鳴動시키라!』꼬리키ー『海燕의 노래』의 一節은 그가 呼吸하는 無氣力한 時代의 暗雲과 低氣壓을 傲然히 헤치고 나오는 그 自身을 彷彿케하는 同時에 작혀가는 푸롤레타리아의 巨大한 飛翔을 豫告하는것이엇다。

이러케 一步一步 前進해나오고잇는 꼬리키ー의 藝術的 垂直線은『밤밋바닥』(一九〇二年)에 이르러서 비로소『浮浪人時代』에 創作의 結束을 告하엿다。

卽 이 浮浪人, 放浪者, 아나키스트的 放蕩兒의 止揚은 實로 勞働者階級에의 接近에 依하야 完成되엇든것이니, 이것은 그의 藝術의 必然的 進展이엇스며 또는 最大의 成果라고 할것이다。

이 作品에 잇서서의 가장 重要한 點은, 人間의 絶望과 希望이, 人間生活에 對한 새로운 形式의 創造와 人間의 權利를 위한 抗爭과 對照되어잇는 그것이다 그는 初期에 잇서서는 浮浪人의 世界며 옛날 집시ー의 世界로부터 眞正한 人間型을 차자오랴하엿다。그러나, 浮浪人의 世界란 어떤것인지를 洞察하는데 따라 거기서 人類의 生存을 爲하야 貴重한 人間的인 諸條件을 만들어내는 面을 차즐수 업슴것을 體得하기에 至하엿다。

그리하야 이 作品에서는 밤밋바닥의 生活이 얼마나 무섭고 無氣力하다는것을 暴露하는 畫面에서 푸로레타리아의 속에서 움트고잇는 偉大한 意氣와 熱慾과 根力을 暗示하고잇다。

卽 일즉 그 어떤 作家의 筆端으로도 征服해내지 못한 陰鬱하고 恐怖에 찬 一種特別한 背景아래 描出하야 옛날 꾀가티 다만,

『자아 이걸보아라, 諸君은 人生을 이러케만들어버렷다 이것이 그 中에서 자라난 人間이다』

라는 式으로 그리엿을뿐 아니라 그 人間의 속 기픈곳에 뿌리박혀잇는 무서운 熱과 힘을 深刻히 看取한데에 이 作品의 기피가 잇스고 참다운 生命이 잇는것이니 이 作品의 놀라운 成功은 實로 偶然한일이 아니다。

여기서 아래와 가튼 批評──이라니보다 半可知의 讚美를 한번 더 시 追憶해 보는것도 全然 無益한 일은 아닐것이다──

『그에(꼬리키ー)는 달름한 作家다 그에게는 人生의 참된 기쁨이 잇다, 未來를 約束하는 非常히 明朗한 生活의 기쁨이 잇다。그래도 지금 우리들이 經驗하고잇는 보고 한가지로 노래를 부르고 잇는 것이다 조흔때는 온다 무엇이지 모르게 시내人물소리가 나기시작하고 무언지모르게 새로운 새소리가 지저귀고잇다 그中에 그대의 소리가 서기여잇다』

이것은 勿論 달착지근한 軟文的 表現이나 그의 作品의 이러한 明

明朗한 發言은 그의 다른 作品에 잘나오는 넓다란 볼가의 空間과 구수한 로서아의 人物들이엇다。

現實과 가티 可能性을 不斷히 發展할 가지고잇는 人

그의 作品의 이러한 明朗性은 그의 作品에 氾濫하는 붉타는 人間의 熱慾에 比하면 勿論 副次的이요 第二義的이나 이것은 그가 人間을 如實히 또는 正確히 보는 同時에 어디까지던지『人間』을 固執하라는 그의 作家的 態度의 一面이라는 點에서 그의 藝術의 明朗性은 空想家나 單純한 理想主義者의 그것과는 嚴格히 區別되지 안흐면 안된다。그는 이때까지도 眞正한 푸로레타리아를 그 作品에 如實히 表現하엿스나 그 作品中의 人間은 어디까지던지 現實의 人間이엇고『살아잇는 複雜한 人間』이라는 點에서 그 作品中의 人物은 陶醉와 아울러 그의 作品의 色彩와 芳香을 도두고잇는것은 事實이다。

李朝陶磁器小考

그由來、品質、出土等에 關하야 (二)

朴秉來

以上으로써 不充分하나마 朝鮮陶磁器에 對한 發達過程을 推知할수잇스며 陶磁器에 關한 古記事를 紹介하야 窯地及時代를 多少簡이라도 알게되엿을줄 生覺된다 그러나 各個의 陶磁器自身의 出生은 알길이 업스며 또알 時代의 新産物인지를 알면 滿足될것이나 그러나 이와가티 時代의 推定을 滿足하게함에는 多數한 陶磁器를 對하야 研究하는 道理外에 다른方法이 업슬것이다 陶器에 對한 時代의『오래된』 것은 감출수업시 드러나게 되는것이다 數百年前에 燒成한 器皿이라도 使用치 안코 保管傳世하얏다 하자 그러나 그 作品技法은 그時代의 特影을 드러내게되는것이다 故로 多數한 陶磁器에 接觸하게되면 上古 中古等時代의 階段을 알게되다。例를드러말하면 簡이면 口高가 低할수록 오래된것이며 四君子로 花鳥를 그린것 或은 그림下部에 輪郭을한것 五瓜龍繪等에 오래된것이다 或은 白磁이면 乳白色 靑乳白色이 오래된것이라할수잇다 그러나 單純하게 이런點으로만 標準할수업고 器物의 全體的 要素를 본然後에 判斷하여야할것은 勿論이며 또한 當然한 方途라고할수잇다 우리의 先祖가 世界工藝에 獨自獨特한 藝術品인 陶磁器를 남기엿다。

우리로서 우리의 先祖遺物을 保存할必要가 잇는 動機의 無理가 잇스리오 그러나 無責的無力으로 見過한다 실상은 소리한것이다 今日 現狀에서 求할수잇는 朝鮮陶磁器에 對한 發達過程을 分類하여보자 窯址으로 區別, 窯跡物 傳世品에 關하지만 器物로 區分할수잇다。一、窯跡物이라 하는것은 王陵이라든지 上流社會의 貴人의 墓, 或은 庶民의 墓地에서 出土되는것을 말하는것이다 그런故로 上品의 高麗靑瓷는 大槪 王陵及 貴族의 墓에서 나오게된다 따라서 上品의

高麗靑瓷는 高麗의 古都인 開城에서 만히 나오게될것이다 高麗 取締가 嚴하지안하엿슬때에는 高麗磁器는 開城의 名産이라고까지 稱하게되얏섯다 墓所에서나오는 磁器도 墓內部에서나오는 磁器에 優品이 만타 其他所謂三島系統磁器와 李朝初期에 白磁系統의 發展品은 完全하고 上品이것은 保物이라고 斷言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發掘하는 現場은 官廳에서 하는以外에는 到底히 볼수업시 秘密에 屬하야엇다 二、窯跡物 大槪는 不正하게되것이나 器皿과 器皿에 서로부튼것 或은 傷口가 생긴것으로서 그時에 完品으로 使用치 못한것이 窯址에서 發掘하게된다 그런故로 窯跡物은 一般的으로 愛翫치못하게된다。

陶磁器의 窯制及年代制은 一般的으로 區分치안코 普通分院物(廣州)鷄龍山物이라 通稱하게되다 或은「南窯것」「北窯것」이라니「北窯그릇」이라하면 京城以北을말하는것이고「南窯그릇」이라하면 廣義로하면 京城以南이나 狹義로하면 全南及 慶南을 指目하는것이다 大槪는 行政區域으로 區分함이 便利하니 卽慶南物 全南物 忠南 京畿 黃海 平南會寧物이라고 稱한다 그러나그 地方에서도 窯址가다르면 여러가지特徵이생길것이다

一、會寧物、會寧磁器라稱하는 中에는 咸北의 會寧 富寧 慶源 鏡城 明川諸郡의 陶磁器와 咸南의 北靑以北의 陶磁器를 包括하아잇다 窯跡物은 大體로 瓷器(硬한것이만코 손잡이가 잇거나 手이 업는것)大鉢 高台가 高한皿 小碗 片口等이며 小壺도 잇스나 大體로 적은器物이적다 大體는 土器로 高溫燒火에 부른 硬質이지 高台가 거운 疎爛에 붙土는 粗鬆하야 黑色 또는 赤色이며 釉藥은 器物의 胴體 또는 高台까지 덥힌것이 만타 窯의 砂床이 附着이된 器皿이 窯皿의 高台와 胴體에 砂粒에 부튼것이만흐며 釉藥도 만히 덥히게 되아잇다 釉色은 黑褐及 茶色으로 海鼠色이 만코 黑褐 氷裂(터진것) 乳白色으로 海鼠色을 釉藥은 灰釉도 만히 덥히게 되아잇다 明川物은 會寧物과 明川物中 오래된것은 其釉色이 元均 窯에서 나오는것은 約窯藏이만 方에서 나오는것이 잇는것이 만타 鏡城明川地 鮮明한 白磁等이며 또는 黑釉系統의 釉色에 靑味가보이게 되다 會寧明川方面의 咸北物에 物도 會寧物로 通稱하나 多少 容易하게 區別할수잇다 咸南北部 은 海鼠色을 못하야 新品과는 乳白色 或은 黑褐에 窯變으로 乳白色 或 形을 그린것이다 會寧北靑物 飾이업고 다만 簡로 波形或은 輪 다 時代는그리 오래되지 안하얏 은 赤土이고 明川은 黑色土이 成하얏는지 粗惡한 白磁가 나는일 이엇다 그手法은 忠南物과 相 似하다 一般으로 咸北物은 北 支那의 陶磁器形態의 影響을 바 든것이 만하울 窮知할수잇다 現 在에도 會寧 明川에서 昔日과 가든 燒物을 굽고잇스나 時代의 區分은 充分히 알수잇다

漢詩

『薔薇』─押香

桐岡 考選

三等之一

全南靈巖郡 宜昇浩

紅●蔓●綠●刺●威●春●光
滿●架●薔●薇●是●別●庄
飜●浪●裁●霞●凝●臉●淚
孝●風●拶●雨●逼●身●香
芳●姿●灌●盡●文●君●錦
嬌●態●粧●成●漢●女●裳
籬●落●尋●常●淸●露●滿
堪●憐●聖●手●道●心●長

評曰可見其詩學之深矣

讀者文壇

◆本紙去二月十八日 學藝面所載 戲曲春香傳(柳致眞脚色)十四回分을보내주시는분에게는 朝光三月號 進呈하겟나이다 平北寧邊郡獨山面聖興洞李萬河

◆京城府惠化町四六ノ四九八 失名氏에게 貴兄께서讓渡코저 하옵시는 早稲田講義錄後期의것을 讓受코저하옵기 左記住所로 價格을通知하시엿스면고맙겟습니다 大田府寶文町三〇九 金仙鄕

◆讀者諸氏中 京城府近郊에잇는有名한 墓地使用의林野를求하시는분이 게시거든 이 社交室로通하야住所를下敎하옵시면 適當한 價格에 願買코자하옵니다 『願買讀者』

◆大正七年陰十一月十八日으로 陽何年何月何日인지 여러 讀者先生中에서 알여주시면 感謝하겟읍니다

◆元山朴永夏 奉天桂光煥兄! 늘마음속으로 그리워하엿나니… 以後로 만흔指導가잇삽기를! 河東邑內 남매우

隨筆

顯學生通信 (三)

理想을사로잡는者

世專 金汝鶴

그것은 全部 歷史의 功罪이가 한다。

보라! 數千年에 壓迫이거레간 人類의 大道를 그대로繼承하야 前進하는 濟濟한 敎育의 職務옥 벳이나 只今이나 한결가티 빈손으로 大福을막으려는 독가튼 어리석은 되푸리를 하고 잇지안흔가。

힘과힘 그리고 또힘。統制와 兵馬를 唯一의手段으로 알엇든 秦始皇의 獨裁의 그어느하나가 풀끄레 매진든 嬴秦이슬 아츰해에 떠러지는 悲哀를 맛보지안헛든가。너머 理想的이엿기때문에 戰國時代라는 現實을 無視하엿든 孔子의 理想이 너머 野望的이엿기때문에 後孫들에게 틀려운술잔을 도언시 復讐를 當하야버린 한때英雄들의 悲劇을 나가다가는 兩쪽의 두極端이 아닐수업다。

그러나 矛盾과 相剋은 統一과 調和의 前提라고하엿다。世態人心은 自己慾望을 채우가며 또한 남에게 施德의 恩功을 세우려는 약빠른 길을 찾고잇다。이것은 果然 얼고 極히 常識的인 哲學일는지모르나 常識的이면 常識的일수록 實際的이라는것은 또한 極히 貴한 哲學이 아닌가。

虛空에 뜬 理想을 끄러내리라。卑屈하게 파고 내려간 理想을 끄러올니라。칼과 피가 서로 調和되는 날 利己와 博愛가 한데 統一되는 곳, 그때 그곳에 나는 새로운 第三理想을 希望한다。卽、個人으로서의 自我를 包含한 大衆的인 理想이 그것이다。이것은 地上天國의 黃金夢이 깨여진 그날부터 各民族으로부터 要望되여온 理想이라고 나는 생각한다。現實關係도 이 理想을 따르지 이미 오랜것이 아닐가。

한民族的인 存在가 어떠케하면 좀더나흔民族、좀더살기조흔現實로 옮기여 나갈가──하는 問題는 帝國主義에잇서서나 社會主義에잇서서나 又는 無抵抗主義에잇서서나 맛쇼에잇서서나 다가티 즐기롭히써온 宿題다。

나는 이 解決의 方法으로 斷然 第三理想을 提唱하고십다。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世代現實이 待望하야마지안는 산理想이기때문이다。第人들의 主義든 그것이 要求發生되든 그時代 그社會制度下에 잇서서는 各其 한개의 산理想이엿슬는지모르나 때와땅이 서로바뀌인 이世代 이따의 現實우에 그것이 固執될때 그것은 임이죽은 理想以外 아모것도아니다。

보라! 聖書에 依하면 비록하나님의 啓示는 바덧다할지언정 한民族의 삶의길을 求하야 埃及을 떠난모세는 果然 엇떠한理想에 불타시나하엿든가 時代의 差만은 잇술지언정 나치쓰獨逸의 新國家의 再興과 무엇을달하고잇는가。

우리는 個人쓩과 死活의理想만을좃차 發展하엿든 從來의 態度를 고치여 한民族의 更生을 할하는 第三理想─곳 산理想을바삐따러가야되겟다。

그리하야 임이죽은 理想을 못들고 理想을 잡엇다고떠드는 迷夢에서 깨여나 산理想을 사로잡는 能動的인 行動人이되여야하겟다。(一九三六、七、二三)

ウテナクリーム
雪印バニシング
우데나크림

더운盛夏에도
우데나의雪印으로
淸楚하게、젊게
明朗하게!

色은純白
말숙히皮下에滲透하야榮養이되어

强烈한太陽光線의直射로보기설흔볏거름、검버섯、죽은깨를豫防합니다。
暑氣에弛緩한肌膚를緊約하야、潑剌히빗갈힌젊은살을培育합니다
脂肪過剩을防止하야여드름吹出物을豫防합니다。
그感觸은香氣와함께暑氣를이즐만큼爽然합니다、

바다에! 山에!
질겁게、아름답게夏節을보내랴면여데서따노치못할理想的인크림입니다

化粧下에!
雪印으로곱나노흔肌膚가化粧이버슬줄을모르는것은勿論입니다。
化粧하기前의少量은白粉이잘오르고잘펴지게하며、脂肪을防止하야오래가는것입니다。

面刀後에
面刀에덧나는것、面刀傷處로徽菌의侵入을防止하므로、더운여름에는업지못할男子의整肌料입니다。

純白無脂肪性
三十二錢
六十四錢

肌膚美를昂揚하는唯一한雪印クリーム

ウテナ粉白粉
우데나

東洋人의肌膚에꼭맛는粉粒의微細함!
「그新鮮한近代的色感!
夏節薄化粧은ウテナ의粉으로비로소곱고도爽凉!
三十二錢
五十三錢

マンテン石鹼 ウテナ化粧料 本舖 久保政吉商店

11.7-위1

連載野談 (七五)

布囊記

申鼎言 作 / 金熊超 畵

복을짓는그갑 (十九)

공주가 뜻아닌 호동왕자의편지를 집어든 손은 할으로에서롭게도 떨리엇다。

그 궁금한 생각으로는 빨리 편지를 떼어보고 십헛스나 그사연이 무엇인지 알수가업스매 얼는 떼볼생각은 업고 다만가슴속에서 두방맹이질하는 소리만 들엿다。

공주는 그 뛰는 가슴을 얼마동안 애를써서 조용 진정한뒤에 싸고싼 편지를 떼어 읽어내려가니 그사연에하얏스되

『라랑국길을 밟고 잠시 지내가든 이몸。우연히 대왕의성덕을 입어 저간 놀론 술에가 몸에 넘치것은 거마진삽고 특히 공주아기씨와 백년가약을 맺게 되온것은 이것이 대왕의 성덕도 장하시려니와 아마도 상제께서 마련하얏는바 그글자의 획이 바르지 못하고 글시줄이 또한 바르지 못한것으로 보아 호동왕자가 이글을 쓸때에 얼마나심신이 산란하얏는것을 넉넉히 짐작할수가잇셧다。

공주는 편지를 다본뒤에 그편지를 얼굴에 대고 늣겨 울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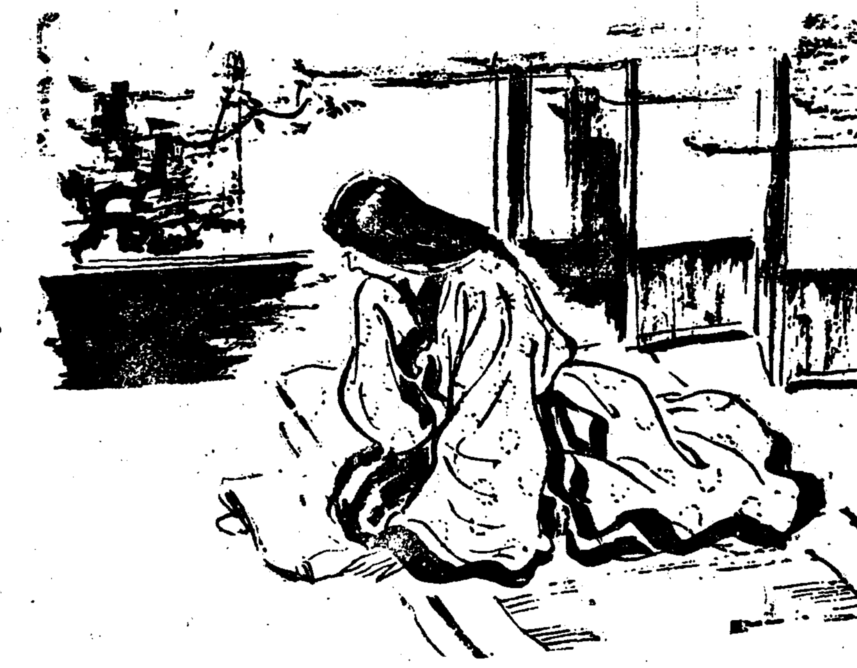
그리다가 다시 그편지를 내려노코 눈물어린 눈으로 보다가는 도울고、울다가는 또보기를 몟번 거듭하얏다。

『하라、국무고안에잇는 북과라팔을 업새라는말슴。이것은분명히 우리나라 라랑을 망케하는말슴』

하며 공주는 일신을 바람이날듯이 떨엇다。

공주가 편지를 볼뒤 이처럼 몹시 떨다가

『으응。이편지는 그대로 둘수업는 편지!』



하압신 큰연연。그러삽거니이몸이 어찌 잠시를 공주아기씨의 겨를 떠나며 공주아기씨가 이몸을 그와가리 떠날수잇스릿가。그런데 다만이글월한장을 노코 말이업시 밤질을 것게되것은 사랑도 중하거니와 충효도 그러삽기로 비겁한 남아가되어 구차한길을 것게되온것。이몸의 이길은 공주자져씨를 영영 리별하려는 의리업는 짓이아니오 공주아가씨와 영영 영광스럽게 해로하려는 그복된길을 취한짓。 그럼으로 이몸의 진정을 다하와 부탁하압노니 공주고안에 들어잇는 그북은 갈기갈기 찢즈시고 그팔은 쪼각쪼각 짓바서내려주소서。아마 이부탁을 버리시지아니하면 이글월한조각이 우리두몸으로하야금 가린줄게하는 복된 글이될것。만일그러케도되면 이글월은 영영 떨어지게하는 한많은 글이될것을 명세。부대부대。이부탁을저바리지맙소서。이몸은 공주아기씨를 우리나라 례법대로마지할것을 마련하고 공주아기씨의 주무가르신 박가오글날만 고련하것나이다。말슴철철하오너시신이 산란하고 손끗이 황망하아 이만첩삽노니 깁히깁히 헤아려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그편지를 불로 살느고、그재를 그어엽븐 손끗으로 쓸어모르고 그쓸어모흔것을 다시 외손바닥에 집어노흔채 창문을 열고 공중을 향하야 앵도빗가튼 두입설을 한데 모와가지고 힘차게 부러버렷다。

이때 공주의 얼골빗은 그입설빗과 가리 밝아젓다。

이튼날 아침!

공주는 할일업시 라랑왕께대하야 호동왕자가 고국으로 돌아가것을 엿주엇다。

라랑왕은 크게 놀나는빗을 띄우며

『어찌해 고함이어서 갓스며、하는말은 무엇이드냐!』

『잠간 단여오겟습으로. 하직을 엿줍것이다 고하얏고、내식으로을 고구려례법대로 마지할마련을하겟다고 말슴한것을 알외옵』

하고 공주는 모든것을 꾸며데어 대답하얏다。

『그럿케다。부마는 의리가잇는 남자。아기를 례로서 데려간다는 말이 례외를 아는말。울지。내게 하직을 아니하고 미혜한뜻이 내게 하직하면、응당 부마의 례차기구로 보냇것 그러면 그부왕께 고치안코 한업이라 그것이 죄스럽워서。오늘에서으로 돌아가서 먼저 대무신왕의 허락을밧고 그뒤에는 정당한례법으로 마지하려고。 거봐!。지혜가 어떠한가。아기는 아무러케말고 기달여 응。』

하며 라랑왕은 호동왕자가 도망한것을 도리여 지혜잇는짓으로써 크게 칭찬하얏다。

공주는 그부왕의 말슴을 가슴이 쓰리게 듯고 처소로 돌아왓다。

그리고 그 편지사연을 다시 외우며 비수를 꺼내어서 얼어노코

『사랑?。

나라?。

그어느것을 밟을가 고개를 숙이엿다。』

사랑하는그를爲하야 百萬弗도아깝지안타
우리찰리는三痴의하나?

【헐리우드發同盟郵信】저조화하는女子에게 눈이어두운것은그야말로 찰스·챠푸린氏에게 限하야잇는일도아니겟지만은 그분이 이번 포렛트·고다드孃을爲하야 百萬弗을 내던진다니까 좋은벌어이지는이약이다。두사람이 손에손을맞잡고 極東旅行으로부터 돌아온 우리찰리와그의 愛人포렛트는 지금 비바리·힐의宏壯한邸宅에서 몸을쉬면서 다음計畫을꾸미고잇는데 그의다음篇寫眞은찰리가 出演치안코 폴렛드·고다드를 主役으로하는 百萬弗映畫라는것만 確定되얏다고한다 그는 유니한存在다 지금女優들中에서는 比肩할사람이업다 머리는조코 演技는훌륭하고才能도잇고 必要한것은그것을어떠케살리느냐하는것뿐이다。『나는百萬弗을 내던진다』라고하는것이 챠푸린君의 說明이다 어쨋든 一年이 무섭게밧꾸어드리는 챠푸린君의 안해로서 고다드孃은 벌서六年을 끄는터로 그點유니ー한것만 異議가업는터。

남의어머니로서 『말레네드리히』

【헐리우드發同盟郵信】銀幕上의 반파이어、말레네·드리히도 남의어머니로서 어머니노릇을 하는데는 마찬가지다 그에게는當年十一歲된 마리로라는 딸이잇는데 自己가 出演한 映畫를그대로는 그딸에게 보이지안는다는 이약이가잇다。

나도딸에게다가 人生에 對하야 [illegible]觀念을 너허주고는십지 안습니다 그것이 어미된 義務라고 생각합니다。가른것도 내가 出演한것은勿論 다른사람의 것이라도·몬저내가한번보지안코

☆曆☆

七月廿九日(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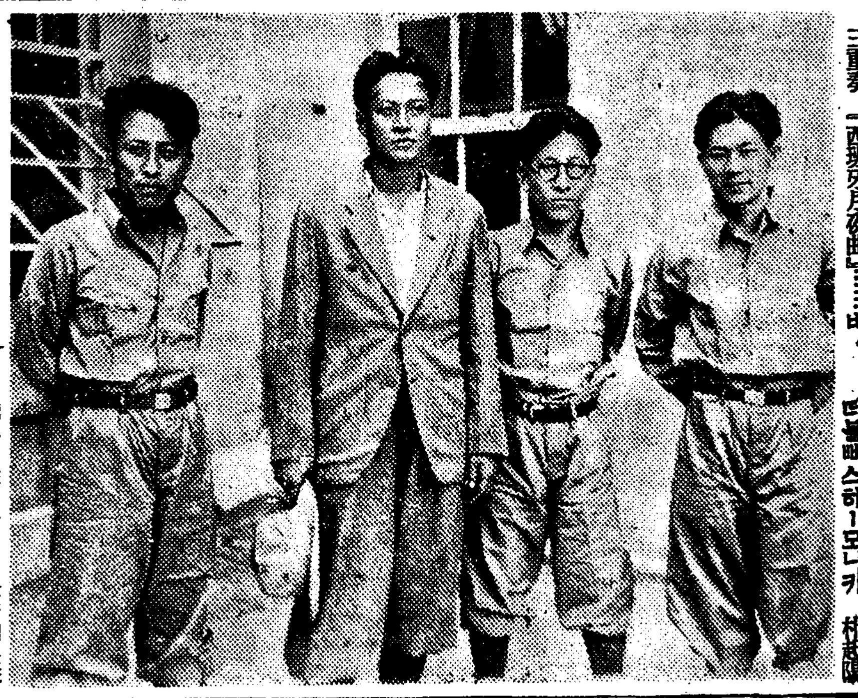
舊乙未六月小(十一日)

壬子·木·箕·執

●大暑二十二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羅雲奎氏監督 "荒蕪地"를製作

朝鮮映畫界의 巨匠인 羅雲奎氏는 姜弘植氏 主演으로 荒蕪地를 監督키로 되얏는데 撮影에는 李明雨氏 錄音에는 李弼雨氏라고한다 이미 모든準備도完了되야 先發隊七人은 赴戰高原을向하야 出發하얏다。 寫眞은 人事次 本社를來訪한 羅雲奎 姜弘植 李弼雨 崔寅奎四氏



라듸오

二十八日(火曜)

◇同六時三〇分 하ー모니카三重奏와五重奏 一、五重奏『祝典行進曲』……川口章吾編曲 二、三重奏『西班牙月夜曲』……비제ー作曲 三、五重奏『荒城』…李東坡作曲 四、三重奏『다뉴브江의잔물결』……이바노비치作曲 五、五重奏 米國巡邏兵……미ー잘作曲

알파、하ー모니카밴드
우더나리하ー모니카 權五誥
오라ー브하ー모니카 金無槃
파리톤하ー모니카 任喆淳
크라리넷하ー모니카 金虎浩
떠블빠스하ー모니카 朴武陽
指揮 崔一出

◇同七時 經典解說 佛敎時報社 金敬注

◇同八時 趣味講演 名山大刹巡禮(二) 金日坤

◇同八時三〇分新民謠 一、淸風明月 二、靑春의碑文 三、눈물의배따라기 四、어허야나르라오 五、처사랑 張一粱紅

◇同八時五〇分詠詩 一、將進酒 二、採蓮曲 尹應周 細笛 高敏德

◇同九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春香傳中獄中石耳〃 鼓手 池龍九 李東伯

◇同九時三十五分 流行歌 一、한숨 二、二八靑春 三、靑空九萬里 四、아래마을라질 五、나그네사랑 伴奏 DK管絃團 李圭南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童話 關屋五十二

◇同六時二五分 靑年時間 池田林儀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天治俊一

◇同八時 流行歌 本券一鶴外

◇同八時三〇分(釜) 哥澤 高奴 哥澤芝美代外

◇同八時五〇分(東) 라듸오드라마 河合武雄外

二十九日(水曜)

◇午後〇時五分 脚本朗讀『빼주기울때』一場 秦貞玉作 安鍾和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ー京城 그라운드로부터ー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第二次豫選

◇同六時三〇分 童謠 一、별세기(齊唱) 二、齊唱 새들의말 三、獨唱 꼬부랑두던 四、齊唱 무명초 五、齊唱 닭알 六、獨唱 갈닙피리 七、齊唱 산으로갈가바다로갈가 八、齊唱 시내물 忠信學院生徒 伴奏 金龍煥

◇同七時 課外講座(二)〃電氣이야기〃 培花女高 李萬珪

◇同八時 趣味講演〃名山大刹巡禮〃(三) 金日仲

◇同八時二〇分 俚謠敎調와鳳凰歌 一、敎調 가、진양조、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鳳凰歌 柳東林 杖鼓 舘千鴻

◇同九時 映畫劇『法廷에선女子』
ー配役ー
辯護士…李愚興
金淑姬……卜惠淑
檢事……李承雨
裁判長……成東鎬
解說 李愚興
映畫劇協會

◇同九時三〇分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平擧 三、羽調頭擧 四、牛葉 效果 元雨田 金鳳仙
洋琴 朴相玉 大笒 金永淳 杖鼓 金一根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英語會話講座 H·W·죤스 G·R·빠커

◇午後零時五分 (大)모리다小唄

◇同二時 (東)水泳講座

◇同六時 (廣)物語劇 夕星座一行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松尾長遣

◇同八時 (大)淸元 淸元延葉福葉外

◇同八時二〇分 (東)新日本音樂 吉田晴風外

◇同八時四〇分 (東)라듸오·드라마 河合武雄外

三十日(木曜)

◇午後零時五分 (東) 吹奏樂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岡田國一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ー京城 그라운드로부터ー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同六時三〇分 童話 全俞鎭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二) 紫外光線이야기 醫專病院 金星煥

◇同八時 講演 朝鮮의交通 普成高普 姜在鎬

◇同八時三〇分 懸賞라듸오小說發表(二等當選)『물지게』 李炳詰作 申不出

◇同九時一〇分 音律 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會員

◇同九時三五分 執杖歌外 一、執杖歌 二、풋고초 三、제비가 四、곰보타령 全光泰 申花中仙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速成獨逸語講座 登張信一郎

◇同十時三〇分 家庭講座 元木信雄

◇午後零時五分(東) 吹奏樂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岡田國一

◇同一時 常識講座 村山道雄

◇同六時 未定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阿知和安彥

◇午後七時三〇分(東) 政治家의저녁

◇同八時三五分(大) 明治天皇御製謹唱 中村淑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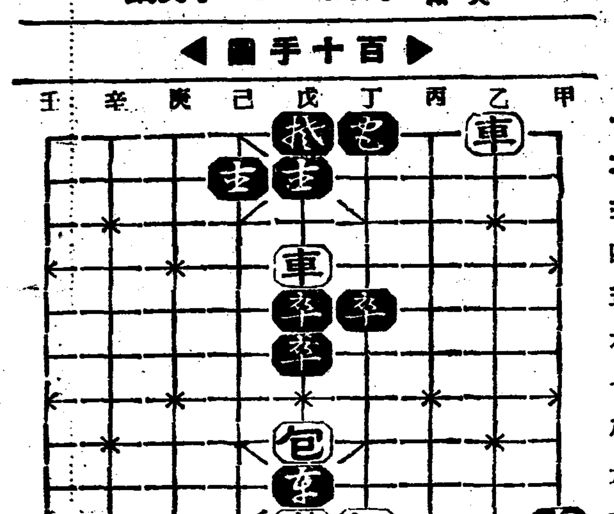
◇同八時五〇分(東) 雅樂 宮內省樂部

◇同九時一〇分(東) 長唄 松永和風外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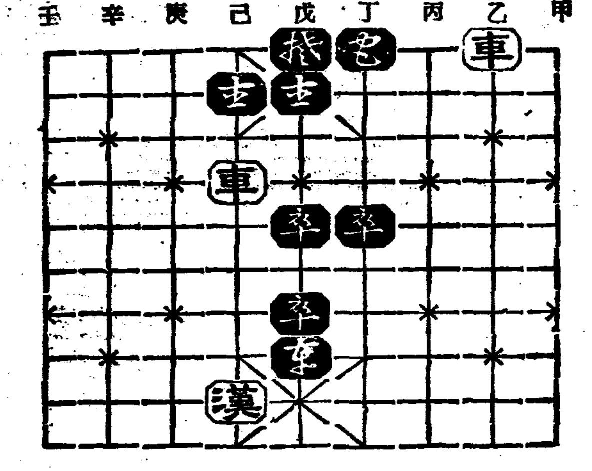
漢先手 李在鳳 對 李英鎬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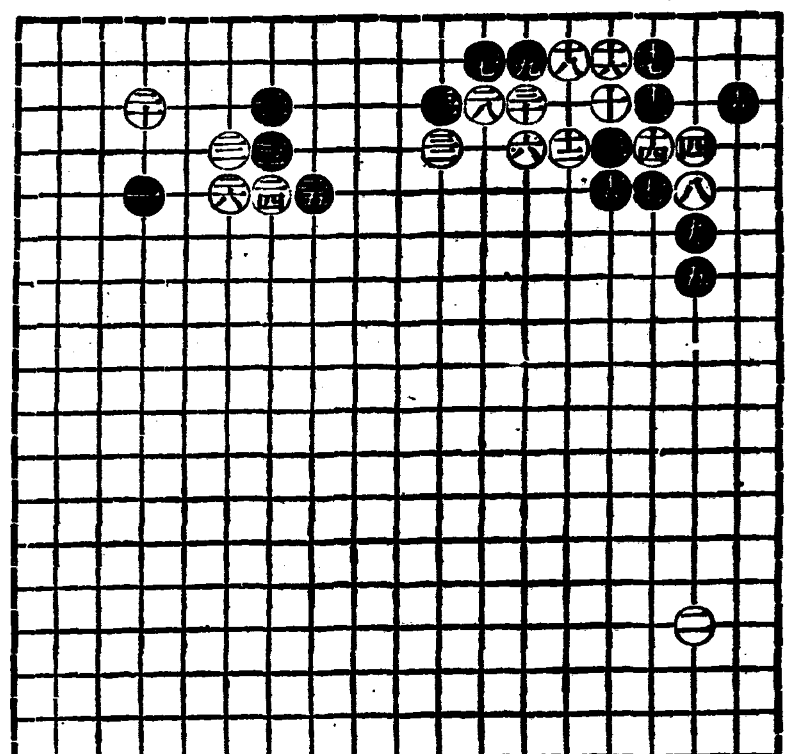
戊十漢ー戊九打車
甲十●ー丁十打包 呼將
戊九漢ー己九
丁十●ー丁九呼將
己九漢ー己八
丁九●ー丁八
己八漢ー己九
丁八●ー戊九打包
戊四車ー己四
戊六●ー戊七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白 權乘部
黑先 丁奎春

● 廿	丁의二
○ 廿一	己의二
● 廿二	乙의三
○ 廿三	巳의三
● 廿四	寅의三
○ 廿五	卯의四
● 廿六	寅의四
○ 廿七	寅의五
● 廿八	丑의五
○ 廿九	卯의五
● 卅	辛의二
○ 卅一	辛의三
● 卅二	庚의二
○ 卅三	庚의三
● 卅四	壬의三
○ 卅五	壬의四



蔡極文氏評日 白이 丙의四로 連三點을 黑에게 提供함은 遺憾으로 着想되라 丁의三으로 延하야 耳角保護가 差强일뿐 白巳의三을 黑頁의 三間함이 牽制備에 相當하고 黑이 辛의二로 白을 脅威함이 亦不案할까하노라

景品總額 拾萬圓의大懸賞付賣出し

締切絶迫! 七月末日迄

クラブ齒磨

クラブ齒磨를사실때마다百五十萬人에게빼지안코優待景品進呈 다시抽籤하야豪華大景品이二重으로當籤拾萬圓의大懸賞!白熱的大好評

이런豪華大景品

天賞……六百名

紳士賞 絽羽織地 一反 / カットグラス煙草セット 一組 / 旅行用手提鞄 一個 / 國島マンドリン 一個

淑女賞 新柄銘仙 一反 / 本麻蒲團 一枚 / 新柄流行晴雨兼用洋傘 一本 / クラブ化粧品詰合函 一函

御子樣賞 中學用軟式野球道具 一組 / 實驗用顯微鏡(五〇〇倍) 一個 / 舞踊人形 一個 / ベビー服セット 一組 (何れか一品御指定)

地賞……二千名 流行新柄浴衣地 一反 (反東好太郎丈好み 阪栗紙子孃好み 高杉早苗孃好み)何れか

人賞……六千名 クラブ乳液 一個 (綜合ホルモン含有)

發表 八月中旬 天賞に限り發表。他は賞品發送により發表に代へます

優待景品 クラブ齒磨三十錢以上御買上と同時に百五十萬人樣に販賣店にて下記景品洩れなく進呈致します。 クラブ美身クリーム(普及瓶) クラブ乳液(普及瓶) クラブ美の素石鹸(小形) 何れか一個

クラブ齒磨의空函으로 멧枚던지내주십시요

問題는누구나할수잇다

(1) 齒を白く强くしムシ齒をつくらぬ クラ○齒磨
(2) クラブ齒磨のマークは建武中興の大忠臣 大○公

右の○に適當な文字を入れますと、今大好評の齒磨の名とマークになります。(解答は一つでも結構です)

方法은極히簡單!

クラブ煉齒磨(三十錢以上)の外函のウラ又は半煉クラブ齒磨の帶封二枚を適當な紙に貼つたものに(他の用紙にても可) (イ)クラ○齒磨 大○公 (ロ)あなたの御住所氏名をはつきりかいて、お買上の販賣店へ、又は直接左記へお送り下さい。抽籤の上で當籤者へ規定の大賞品をお送り致します。(十五萬まで三錢・郵稅不足は無効)(お買上げは本催しのポスター掲出の店で!)

東京市京橋區銀座西又は 大阪市浪速區水崎町 中山太陽堂 クラブ齒磨大懸賞係

虫齒를防止하는 クラブ齒磨

クラブ齒磨는殺菌劑로서比할수업는「녹구로ー르·칼바구로ー르及요ー도지모ー루」를配合하엿스므로齒牙와內臟을侵犯하는口中에무서운徵菌을防止하고淸掃作用을充分히하는前例업는齒磨입니다 クラブ齒磨를使用하시면虫齒가되지안을뿐더러히고아름다운齒牙가됨

クラブ煉齒磨 一二전·一五전·三〇전·四六전· 半煉クラブ齒磨 一六전

B—235

中間商人의 壟斷 叺生産者에 打擊

定平郡에서 만年四萬圓受損 警察當局서도 重大視

【定平】함남 정평군(定平郡)에서는 농가부업의 대부분을 점하고잇는「가마니」(叺)가격의 인상을 절규하야 정군내에 흥분이 비등하고잇다 그내면을조사하여보면 정평군의가마니는 일반생산에 근사만여원으로 세농층의 대부분은 모다이「가마니」를짜서 생활의자료를 하고잇는바 최근에이르러서는 유일한 중간매입자인 함흥중앙회사(咸興中央會社)매입소에서 사들내지 사들의 만흔 중간리득을 페옴으로 생산자인 농민들은 원료대로 인건비(人件費)를 제하면은 아무소득이업는 형편이라고한다 이리하야 정평경찰서에서도 그사태를 중대시하야 진상에대하야 조사하여본결과 과연회사측에서는 아래와가티

一等叺 二十一錢
二等 十九錢
三等 十五錢

으로매입하야서는 수요자에게는 아래와가티

一等叺 二十八錢
二等 二十六錢
三等 二十三錢

으로 매매하야 모다 근사할의 중간수수료를바다먹는 사실이 판명되엿다 이를보아 일년동안만 하더라도 근사만여원의손해를 농가로하게되는형편으로 동경찰서에서도 사태를매우중대시하야 도당국과협력하는동시 회사측과생산자간에나서 타협시키기에 노력중이라고하는데 그결과는 매우 주목된다고한다

櫻實따먹엇다고 無知小兒에게 酷刑

注文津某小學校長處事

【注文津】날이가고달이갈사록세상의인심은 극도로악화하여갈뿐이다 최근 주문진심상소학교장 야중원지(注文津尋常小學校長中野源治)씨는 어떤아이들이 학교교정안에잇는 사구라열매(櫻實)를 따먹엇다고 불러갓다가 붉은 잉크로칠을하야 조금을하고 야비하게도 낫(面)에 처버린사실이 이상차잇섯다 일반부모들은 소위교육자의 이런편파한행동에 분개할뿐만 아니라 하로바삐 자긔청산처단이 잇기를 바란다고한다

脫走한殺人犯人 義州에서逮捕

【義州】긔보=지난이십일시긔천구와가리 배에서수술을먹다가 따려죽여서 물에던진사실로 소판주재소에검거취조중이든 의주군수진면 동운동(義州郡水鎭面雲洞) 상배칠십일번지에잇는 박지무(朴芝茂)(三二)가수경관의엄는틈을타서 주재소를 탈주한이래 오십여시간만에의주읍남문동(義州邑南門洞)자긔매부 김근복(金根福)의집에 잠복하여잇든 것을 의주서경관이 체포하엿다한다

長淵公立普校 校舍新築移轉

【長淵】장연공립보통학교는종래로 장연객사를 구교사로 사용하여왓는데 교실과 운동장이 협착할뿐아니라 시장 부근이고 양수장이 편근에잇서서 아동교육상결함이 적지아니함을 학교당국은 물론 일반도 유감으로 역이든바 읍외리 두견산록에 오천칠백평방 대지사평을 매수하야 교실건평 이백팔십평을 지난일월이십일에 기공하여 총공비삼만일천팔백원을드려 지난이십일 준공되여 이전하엿다는데 세멘콩크리트제로서 신흥장연의 위대한건물이 읍내북편에 엄연히 서잇서 미관상으로도 훌륭하거니와 아프로는실로 아동교육상 제반결함을 일소할것이라고 일

咸興、興南에橫行튼 五人組窃盜打盡

被害額이三千餘圓

【咸興】함흥경찰서에서는 근일 시내에서 도난사건이 빈번히이러나서 그피해액이 막대함으로 그범인수사에 노력하고잇든바이 름절도의전부가 일련오명의 절과자를포함한 조직된 대규모의절도단의 소위라는것을알고 이십일에 그들일단이 잠복하고잇다는 함주군하기천면 동흥리(咸州郡下岐川面東興里)에 잠복하고잇는것을 습격하야 일단중 네명을 일망타진하엿는데 그중 주범인 본적을 강원도양양읍(襄陽邑)에둔 고히봉(高熙鳳)(三十)은 교묘히 경계망을 돌코 흥남(興南)방면에 다라낫슴으로 다시함흥경찰서의 수배로서 이십사일 체포하게되여 완전히 일망타진하엿다 그들은 지금보다 함흥서에알송되여 엄중히 취조를밧고잇는데 작년오월초부터 함흥부내를 근거로하야 흥남(興南) 하기천(下岐川) 장진(長津) 등지에서 이십여회에 삼천여원어치의 금품을 절취하엿스며 지난칠월초순 함흥부내 모처에서 일어버린권총도이들의 소위로 판명되엿는데 취조에따라 그들의 놀내만한 범행은 더욱만흘리라고한다

東西兩派爭奪 德興面事務所位置

【永興】함남영흥군 덕흥면(德興面)에서는 면소이전문제로 금춘부터 귀군로지방을 수립하고 각방으로 비궁로지에대하야정력을 다하야활동한바니라 일반면민간에는 면사무소 위치문제로 양파간에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서로 다툼아오던터인데 면민측에서는 그문제를 해결짓기 위하야 지난이십사일에 면민유지회의를 개최하고 동문제를 협의한바 동서(東西)양파가 대립하야 결정한 위치결정이 개시되여 일시장내는 수라장화 되엿섯다고하며 현안된 위치문제는 동쪽 마장(馬場)과서쪽 내룡리(內龍里)를 후보지로서 결국 문제는 본부허가로 되엿다고 하는데 어느시기에 낙착이 될는지 일반은 크게 주시중이라고한다

元山海星校記念事業 理科、家事室建築

工費五千餘圓으로

【元山】원산천주교회의 경영인 원산해성보통학교(元山海星普校)는 금번이 창립만십오주년이되엿다는데 동교후원회에서는 이번 십오주년기념을 유이의하게하기위하야 총공비오천오백원으로서 리과실(理科室)과가사실(家事室)을건축하기로하고 일반유지와학부형들로부터 회사금을 밧기로하야 벌서일천오백원이 들어왓스나 남어지 사천원의경비가문제로나려오든중 지난이십사일동교발전간담회석상에서 김계률(金桂律)씨외진필명이 자진하야 일천백사십원을 회사하얏다 이회사를 계기로 동교기념관건축에는 새로운서광이 비치워저서 불원에 남어지금액도 모집되리라한다

多年間懸案이든 禮山劇場起工

朴炳來氏盛擧로

【禮山】오래동안 례산시민의화제가 되여오든 극장문제는 이제야 해결의 서광을 보게되엿다 례산읍 금평리박병래(邑金平里朴炳來)씨는 만여주민을 포용한 례산대중의 위안을 제공할만한집회장소가 업슴을 항상유감으로 생각해오든중 이번에 만여원이라는 거액을 던저 례산유일의 현대식 건축으로팔백여명을 수용할만한 예술의전당을 만련할방침아래 세우게되엿는바 동씨의 금번장거에 일반의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上水道促進委員 第一次로陳情

【沙里院】긔보=사리원 상수도부설기성회(沙里院上水道敷設期成會)에서는 총독부와도의 예산편성기를 압두고기어히 래년도예산에 계상토록 량해를엇기위하야 제이차로 진정위원이지난이십사일에 출발하엿다한다

◇陳情委員 楊在薰 朴命植 中村勝山

稻熱病과 虫災로 農作物全滅狀態

農家에서는除草까지도中止 穀庫井邑農民의恐慌

【新泰仁】전북정읍은 조선농업생산의 중심지요 김제평야를연결한대평야인데 비옥한논 일만구천정보와 매년구십오만석(시가천칠백팔십만원)을생산하야 십팔만군민의 생활을보장케한다 작년미증유의 대한발로 수만불거지를 내이더니 금년에는 엇지대탄지기로 도열병(稻熱病)과이화명충(二化螟虫)이발생하야 전군비옥답 일만구천정보가 거의만연되여 시간적으로 번지되는 도열병과 충재는 청녹색(靑綠色)을 띠여야될 대평야에 돌연 적황색(赤黃色)을 떠운황무지 가을들로 변하고말엇다 그중에는 이백내지 삼백두락을 경작하는 대규모의 영농가가 이삼십두락만 재한 외에 전멸을당한자만하며 소규모의영농가 도는빈농가들도 일할의 감소로부터 전멸까지 갑종의피해로 폐농과고통하는자 만흔데 논에는 풀과피는벼에안결리고 성성하야 하나며울것업는논에 제초가 필요어다하야 제초를 중지하고 금후와 명춘에 먹을 준비로 조곰이잇는보리의 단속과경우매갑을 벌서부터 준비하고잇는데 군당국자의 말에의하면 도에서도 별구제방법이업슴으로우리도별도리가업다고하며 시는옷갈고재산부한사람도만호다

惠山에惡疾猖獗 死亡續出

【惠山鎭】함남혜산진은 일전부터 강충천연병이 발생하야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못불안하게 지내는바 요사이는 저리가 보우신하야 벌서사망자가 만히 판계당국에서도 그대책에 부심하고 잇스나 별방안이 업다는데 아프로 더욱 만연하야 일반은 공포에 차여잇다한다

牙山

第一回中朝鮮軟式庭球

▲時日 八月二日午前九時(雨天順延)
▲場所 溫陽溫泉運動場
◇主催 溫陽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牙山支局 文化堂商會

平壤

律動遊戲講習 發表音樂大會

▲日時 七月三十日午後八時
▲場所 崇專大講堂
◇主催 C、E平壤聯合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地方人事

▲池成宰氏(本社咸州支局記者) 今月二十七日 咸州邑自宅에서 喪內喪
▲宮崎衛四郞氏(前伊川法院出張所主任) 轉勤挨拶次本社伊川支局來訪
▲石川重二氏(前金泉郡守)遞信人事次本社金泉支局來訪

愛慾의彼岸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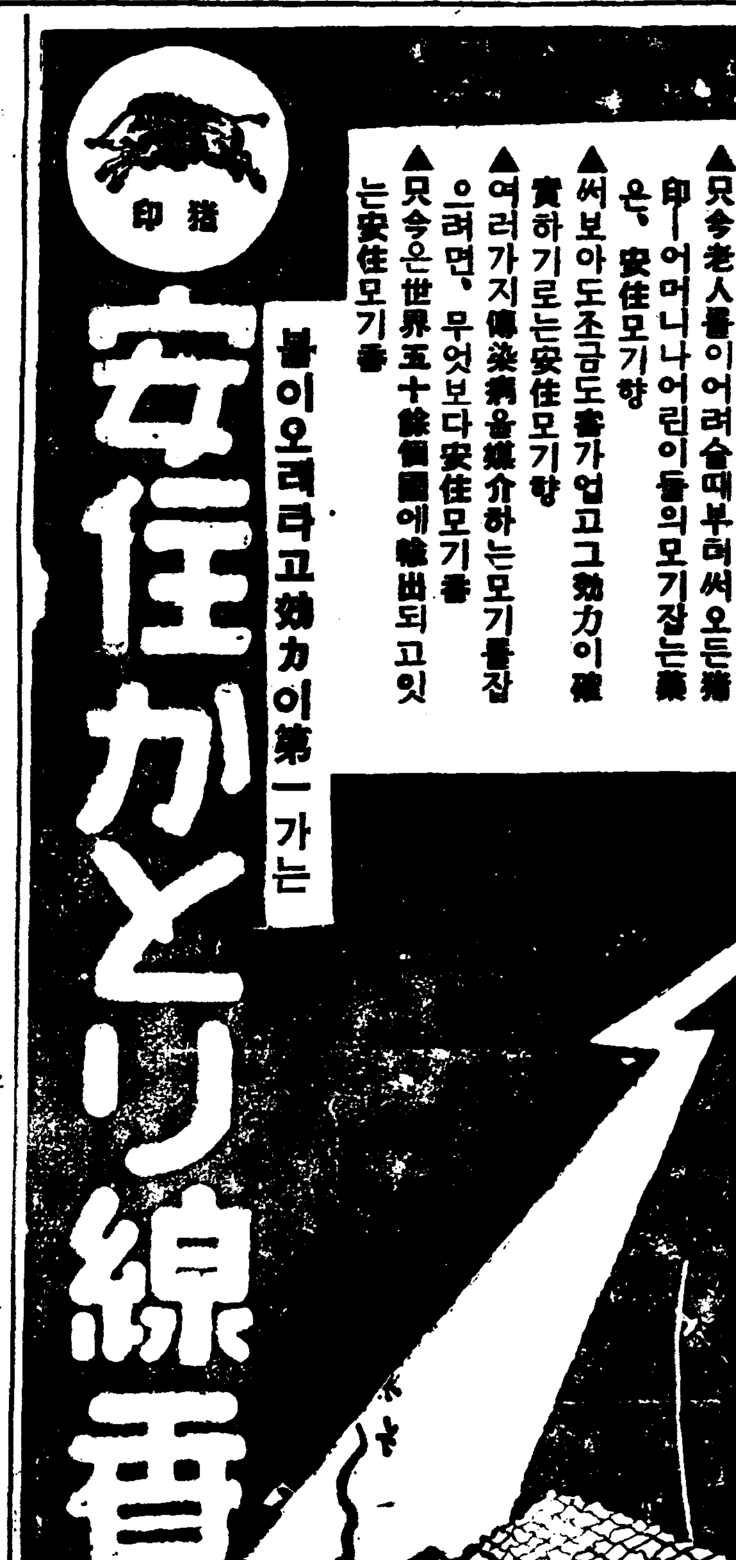
李光洙 作
金康穆 畫

「혜련이、이제 가서 좀 누어붓치」
하고문임은 혜련을 끌엇다。
혜련은 정신업는 사람 모양으로 문임에게 끌려서 방으로 갓다。
「좀 자。사흘이나 잠을 잘가티못자고 어떠케해?」
하고 문임은 요 하나를 깔고 베개를 노코、혜련을 끌어다가 누엿다。문임은 혜련이가 고민하는 양이 심히 아처로왓다。혜련의 술픔이 보통 술픔이아니라 대단히 기픈 술픔인것도 짐작하엿다。
혜련은 문임이가 하는대로아모반항도 업시자리에 누엇다。
「언니두 자우」
하고 혜련은 한참이나 잇다가 가만히안저는 문임의 손을 잡아끌엇다。
문임은、
「어서 자、난혜련이 잘드는것을보고야 잘테야」
하고 문임은 혜련을 안아서모으로 누이고 어머니가 어린애에게 젓먹이는 모양으로 문임을 안고 한 팔 굽이로 꿈을버리고 혜련의 빰에 제 빰을 대엇다——
「언니、고맙수」
하고 혜련은 문임을 꼭 껴안앗다。그러면서 일전 준상이가 자긔의 허리에 팔을 둘리라는것을 뿌리치던것을 생각하엿다。
그것은 이러하엿다——
혜련은 어느날 준상과 함께 경무대뒤를 돌아서 삼청동으로 나려오는 산보를 가리하게되엇다。문임에게도 말업시 혜련은 준상과 사오차 편지왕복이 잇던 끄테 준상의 제의로 오후 일곱시에 효자동 전차종점에서 만나기로 하엿던것이다。혜련은 일생 처음의「랑데부」라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전차를 라고와서 약속한 시간보다 한 십분 늦게 정한 처소에 왓다。준상은 정복 정모로 전차종점에서 연해 시게를 보면서 서성거리고 잇엇다。
혜련이가 벌룩기모양으로 가슴을 할딱거리고 확근거리는 인사를 할 때에 준상은 마치 친형이나 되는듯이 모자 차양에 약간 손을 대는듯하고는 혜련의 어깨에 팔이 스치리만치 가까이 서서 것기를 시작하엿다。
아직 황혼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엇으나 경무대아페서 작난하던 학생들도 다 가 버리고 아주 호젓하엿다。혜련은 서울에서 생장하면서도 이 곳이 처음이기때문에 그 울창한 송림이며、놉다란 문들이며、쓸어진 궁장이며、칙칙한 길이며、이런 것이 모도 무시무시하엿다。그보다도、장대한 남자와 단 둘이서 옷을 스치면서 가지런히 서서 걸어간다는것이 대단히 무서운 사건인것 가탓다。
「내가 어쩌자고 여긔를 왓저」
하고 혜련은 도모지 마음이 노히지아니하엿다。준상은 쉬입새업시 혜련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묻는 말을하엿으나 그 말이잘 들리지를아니하엿다。다만 혜련을 무한히찬미하고、또 무한히 사랑하야 잠시도잇지못한다는、그러한 소설을 읽는듯한 말이것만 혜련은 알아들엇다。
준상의 그 아름다운 말들이 혜련의귀에 거슬리지는 아니하엿으나 그 넘어도 익숙함이、넘어도 기교적임이 혜련의 마음에 일종의 불쾌와 의심을주엇다。「꽤만이 계집애들을 후려낸 솜씨로고나」하는 생각이날때에 혜련은 불쾌하기보다도술펏다。혜련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요새학생들을 미들수업다 그들의 꿀바른 말을 귀담아듯지말라、하는 말을만히 들엇다。
그러나 진실하게 교회에 댕기는 임준상、그러케 점잔아보이는 임준상이야 설마!이러케생각하엿던것이다。그랫던것이 준상의 솜씨가 능난한듯 [illegible] 때에 이 미몽이 깨어 지는것 가탓다。그래서 혜련은 한 마듸도 대답을 아니하엿다。
두 사람이 점점 더욱 호젓한데로 걸어갈때에 준상의 손이 혜련의 손을 더듬는 동작을 혜련은 느꼈다。혜련은 한걸음 멈춧하야 준상의 뒤에떨어젓다。이때에 준상에、
「무엇에 놀라셧서요?」
하고 혜련의 허리에 팔을 두르려하엿다。
「앗으세요!」
하고 혜련은 한 걸음 비켜서면서 준상을 정면으로 바라보앗다。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아름다운 당신의 毛髮을 爲하야……
여름은 땀과 기름으로 一層더 더워지므로 자조 빠러주십시요
빨지안코두면 毛髮에 潤澤이 업서지고 拔毛가 만허집니다
花王샴푸이면 普通衣服을입고도 簡單히 빨수잇슬뿐만아니라 美髮作用이 잇고 色髮을 아름답게하며 成長을 돕습니다
長類 二回 一個·五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 長瀨商會·大阪

旅行에 避暑에
아지노모도맛잇스면 어듸를가든지 음식고통은 업지오 맛업는음식이라도 味の素를 치고 이럭저럭하면 맛잇는 훌륭한음식이 됩니다
味の素 (登錄商標)
「四季朝鮮料理法」 定價五錢 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鈴木商店朝鮮事務所

●模範的頭痛藥! 胃腸을안상한다 ノーシン●
家庭常備藥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猪印
불이오래타고效力이第一가는
安住かとり線香
議論할餘地업다
▲只今老人들이 어려슬때부터써오든猪印ー어머니나어린이들의모기잡는藥은、安住모기향
▲써보아도조금도害가업고그效力이確實하기로는安住모기향
▲여러가지傳染病을媒介하는모기를잡으려면、무엇보다安住모기향
▲只今은世界五十餘個國에輸出되고잇는安住모기향
カトール本舖 設 安住大第男

七月廿七日晝五日間 晝夜三回入替無シ
▲白き王者 獨乙ウファ 主演 ヤリ…
▲撮影所の惨劇 パ社 主演 フランセス・ドレイク
▲魔術の女王 L.C.P 松竹蒲田 主演
大人·五〇 小學生·二〇
P.C.L映畫と高級洋畫
若草映畫劇場

東洋劇場 西大門町
七月廿三日부터晝夜 靑春座公演(第三週)
林仙圭……作 사랑에속고돈에울고 四幕五場
洛川人……作 悲喜劇 헛수고햇소 一場

優美館 貫鐵町 電話光二三九五
空前無比의名畫封切週間 七月二十七日부터納涼特別大興行
廿世紀폭스社超特作日本版 監督조ー지아첸보ー氏
雷雨의殺人 가랜모ー래이孃·에드문드로ー氏主演
雷雨를驟衝하며疾走하는自動車! 夜叉와가티車頭에나타난黑裝의婦人! 래스트라에突擊한怪自動車와 十三號室의殺人!! 雷雨의밤은怪奇와戰慄을안고漸漸깁퍼간다……?
코럼비아特作全發聲西部活劇 로스래다만氏監督作品!
銃火의勝鬨 바크죤스氏大猛演
雜誌キング連載 監督後藤岱山 鬼伏せ頭巾 片岡左衛門主演 五十鈴桂子
透明光線 暗黑街總攻擊 乞期待

第一劇場 黃金町五丁目 電話光二六八番
松竹蒲田大作品全發聲映畫 名匠 淸水宏氏監督
現代劇 若旦那春爛漫 主演 坂本武氏 武田春郞 高杉早苗孃 近衛敏明 桑野通子
滑稽明快靑年淸出의爛漫篇
할마ー크映畫社作品無聲映畫 하리ー·구로즈만氏監督
怪盜捕縛 主演 밀구리드·말루ー스孃
痛快無比한大活劇篇
廿世紀特作全發聲映畫 名篇

中央館 永樂町
七月廿七日夜부터三日間大公開
大谷日出夫、毛利峰子主演 恩讐子守唄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夜間八時始映
每日三回晝夜公演 超特作品當當히上映
大傑作篇 공고ー部隊
廿七日公開(三日間)
劇 千葉周作 監督山口哲平 阪東妻三郞主演
祇園祭 岡田時彦、木村綱子主演

朝鮮內金融機關系 ②

當局整理合同方針으로 朝鮮內銀行數顯著減少

……[illegible]

그래서 大正九年四月로부터 朝鮮內 普通銀行은 整理合同 時代에 드러왓고 그뒤 昭和四年一月一日로부터 實施된新銀行令은 資本金百萬圓未滿의 銀行으로하여금 整理케되야銀行合同은 더욱促成하는結果가 되고말엇다 即 合同運動이 促進되야 昭和六年六月에 北鮮商業銀行을 朝鮮商業銀行에 合併하고 同年七月에는 東萊銀行을 湖南銀行에 合併하엿스며 또 同年十一月에 南鮮銀行은 慶尙合同銀行에 合併하엿다 그리고同年十二月에는 大邱銀行을 慶一銀行에 合併하야 大邱商工銀行으로 改稱하는等 銀行令에依한 無資格銀行은 完全히 整理되고 말엇스며 그러고도 普通銀行의合同이 繼續하엿다.

×

그結果 大正九年末에 朝鮮內에 本店을 둔銀行數는卅三(以上特殊銀行)▲朝鮮銀行▲殖産銀行▲朝鮮商業銀行▲韓一銀行▲漢城銀行▲朝鮮實業銀行(大邱)▲慶南銀行(釜山)▲釜山商業銀行▲大邱銀行▲湖西銀行▲慶一銀行▲三和銀行(鎭南浦)▲北鮮商業銀行▲義州銀行▲元山商業銀行▲三南銀行(全州)▲平壤銀行▲海東銀行▲湖南銀行(光州)▲慶尙共立銀行(大邱) 等이엇든것이 昭和五年末에는 銀行數十六、同八年末에 十二、九年末에 十一、同十年末에 十이로 되야 減少의 數字를 나타내엇는데 그昨年末現在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即 ▲朝鮮銀行▲殖産銀行▲朝鮮商業銀行▲漢城銀行▲東一銀行▲朝鮮信託銀行▲湖西銀行▲海東銀行▲湖南銀行▲大邱商工銀行▲慶尙合同銀行

×

그러나 이支店과 出張所數는反對로 늘엇다 即 ▲大正九年末에 百廿一이엇든 昭和五年末에 百五十四、同八年末百六十三、同九年末百六十五、同十年末百六十八로 漸增

×

▲拂込資本金은 大正九年末에 七千九百九十五萬圓으로 漸增하엿든것이 不況의 深刻으로 昭和五年末에 六千九十七萬千圓으로 激減하엿다 다시 八年末에 六千百八十七萬千圓으로 되고 同九年末六千百七十五萬千圓 同十年末에는 六千五百九十萬圓의 增加의 數字를 이엇다

▲預金總額은 明治四十三年末에 一千八百三十五萬五千圓이엇든것이 大正九年末에는 一億三千九百三十五萬七千圓으로 大激增을 보히고 繼續하야 昭和五年末에 二億三千六百五十六萬三千圓、同八年末에 二億九千四百七十五萬四千圓、同九年末三億三千五百五十九萬七千圓 同十年末三億九千九百九十九萬三千圓

▲貸出總額은 明治四十三年末에 四千九十一萬二千圓이엇든것이 大正九年末에 二億二千六百六十九萬六千圓으로 大激增하야 昭和五年末에 二億八千五百萬圓、同八年末에 三億四千百萬圓、同九年末에 三億八千九百九十九萬圓、同十年末에 四億二千八百九十七萬三千圓

千圓

×

그리고 日本內地에 本店을 둔 所謂朝鮮內支店銀行은 明治十一年 第一銀行支店設置以來로 增加하엿든것이 그동안 變化가 잇섯다고 하지만 그러지도 않코 昨年末까지도 ▲第一 ▲安田 ▲十八 ▲山口의 四個支店銀行이 存續하엿다가 今春에 十八銀行이 殖銀에 吸收合併되엇슴에 따라 그러고 一面으로 金融組合은 普通銀行數의 減少와 反對로 當局者의 勸行 方針에 따라 年年 顯著한 膨脹增加의 數字를 보혓다 即

▲大正九年末 組合數四百、組合員二十四萬四千名이 엇든것이 昭和五年末에 組合數六百四十四、組合員六十七萬名、同十年末六百七十四、九十六萬名 同九年末 六百八十四組、百七萬七千名、同十一年三月現在八百九十二名으로 되고 또는 그預金總額은 一億三千三百四十一萬圓、貸出一億七千九百三十二萬圓의 巨額에 達하엿다.

×

이에잇서 決코 慨歎할 現象이 업는銀行의 廿三도 오늘에 잇서 普通銀行은 七個銀行에 不過케되고 이것과 反對로 朝鮮內 金融組合이 年年激增되는것은 朝鮮에 잇어서 깊이 어떠한 意味가 잇고 또는 그自體가 都市에 잇슴이 深刻한 考慮를 要하는 點이라고 생각한다.

(讀者은 朝鮮에서 普通銀行으로 처음생긴 現朝鮮商業銀行本店……前身은 大韓天一銀行)

東銀幹部進退에 株主意思尊重?

株主懇談會延期、廿八日續開

注目되는當局態度

株主懇談會 內容이 懇談會의 形式을 떠나 所謂 停會의 形式으로 株主總會 開會된 廿七日 午後四時에 株主懇談會를 다시 하로를 延期하야 廿八日午後四時 同行內에서 續開하기로되엇다 한다 그리고 東銀幹部들은 그對策에 腐心하여 다시 이틀만 부른것은 아니며 幹部를 非難하는 東銀株主들의 反對가 잇스므로 다시 따라서 市川常務는 그대로잇고 또 株主懇談會까지 다시 그만두기로 되엿다고 한다

東銀懇談會에서 提議된 內容이 懇談會의 形式上 反對로 縣吏되는 모양이라 고 한다

(一) 滿洲責任은 當取、專務、常務가 다잇스므로 그만두고 따로 하고 銀行等에 對하여서는 新京에서 行하게되는때문에 相川外事課長이 二十九日午前三時十五分 (?) 그러고 東亞勸業買收의 形式中 鮮滿拓殖의 新京支店格인 滿鮮拓殖有限股份公司가 買收當事者가되는 關係上 此等에 關하야 滿洲國과 滿鮮側과 懇議하고 銀行等에 對하여서는 新京에서 行하게되는때문에 相川外事課長이 二十九日午前三時十五分

諸議沸騰으로 交을 내어 제못하여 所謂 停會의 形式인에 하여지고 廿七日 午後四時에 開하라는 東一銀行의 株主懇談會는 다시 하로를 延期하야 廿八日午後四時 同行內에서 續開하기로되엇다 한다 그리고 東銀幹部들은 그對策에 腐心케되고 따라서 東銀幹部 들의反對가 잇스므로 東銀당국에 報告하는 同時에 그 指示에 依할모양이다。그런데 지난 二十八日의 株主懇談會에서 頭取制廢止와 市川常務의 昇格 其他等에 對하야 猛烈히 反對의 意見을 述하엿슴을 西崎理財課長이 直接드럿고 또 朝鮮銀行도 그 報告를 接하여가지고 株主反對의 意見이 當然한 만큼 理財課長과 朝銀의 兩當局者間에는 內定한바를 或은 株主의 意思를 尊重한다는意味로 多少變更을 보게되지안을가 하는 觀測이잇다 어떠튼지 廿八日 續開懇談會의 狀況이 注目을 끄흔다

專務、市川常務 또는처음에 頭取制廢止案이 드러갈 取後任에 閔奎植氏를 選任하자는案 (二)이미 當局에 頭取制廢止에 對하야 承認을 바든것을 變키어려움으로 取締役會長에는 閔丙壽氏로하되 專務에는 成業燾氏가 重任하면 이럿케 되면 市川常務는 昇格치안코 그대로 잇게될것이라는案 (三)閔大植氏는 令息을 取締役會長으로 할생각도업고 다만 令息의自意로 되바가 만흠으로 차라리取締役會長에成業燾氏專務에市川氏로하자는案 等이傳하다 그러나 閔成兩氏間에 微妙한關係가 엉크러저잇슬뿐만아니라 當局者가 이미 承認한것을 朝夕變改함은 可能性이적은만큼 右諸案中 어느程度까지의 變化를 보게될는지 斷키어려웁다고한다

諸案區區

如何落着?

産業統制法

外地適用은困難!

實施되랴면波瀾難免

【東京電話同盟】特別議會를 通過한 改正産業統制法은 本法의 骨子가될 統制의 內外地를 一貫한 産業統制의 見地로 議會에서도 問題가되엿든것인데 本法의 外地에의 適用을 商法施行後遠하야 外地에 適用할 것을 期하얏다한다 拓務當局에서는 永田拓相、小川商相、今井田朝鮮政務總監等으로부터 言明하야왓는데 其後商工當局은 拓務當局이에 統制法의 外地適用에 關하야 折衝하얏스나 外地側은 依然不進이오 諸種事情으로 外地適用은 遲延되는 情勢로서 漸次政治問題化키에 至하얏다 即統制法이 外地에처음부터 適用되지안엇슴으로 세멘트工業의 日本內地의 各社는 外地適用을 熱望하야 議會에서 當局에서는 拓相으로부터 同法改正에 當하여서는 外地適用을 考慮할 條件으로서 商相과 拓務當局과 ... 交涉을 進하얏슴 에도不拘하고 拓務當局에서는外地의 特殊事情을 理由로 하야 具體的折衝에入치안코 今後에도 事務的折衝을 거듭하야도 解決되는 意도 의 可望이업고 同地에는 宇部系의 朝鮮세멘트가 八月中에 工場을 完成할豫定으로統制法外地適用은가장 早急을 要한事態로되엿다 依하야 後藤第一課長은 拓務當局과의 折衝經過를 商相에 報告하고 政治的解決을 進言하얏슴으로 商相도 近間拓相과 會見하고 問題의 解決을 期키로되엿는데 朝鮮拓務兩當局은 統制法外地適用에 相當히 意見을 相異히함으로 速히 解決하기는 困難하리라고한다

東亞勸業

買收成立

相川外事課長談

北滿墾折의 折衝을 進한 鮮滿拓殖社創立의 前提인 同社의東亞勸業公司買收交涉은 兩者의 讓步에依하야 交涉이 成立의 域에 達하얏 二十八日로써 計數整理를 終了하고 總督府에서 兩者折衝을 맛 내엇다

傭船料昂騰

船運賃低下

最近海運市況

最近의 北海道航路는 北海道材의 積取와 캄차카地方의 漁獲이 最盛期에 入하얏슴으로 海運市況은 漸次硬化되는 模樣이잇고이 에依하야 傭船料其他는 그影響이나타 낫다 傭船料는 昨今月末 關係四千噸級四圓으로 떠러것스나 一時는 四圓三十錢臺이 엇고 今月에 品不足의 金融가 錢 ...

朝鮮袋白米統制

大阪商議에서要望

袋入朝鮮白米의 不買問題에依하야 大阪에의朝鮮米移出이 注目되는此際 最近의情報에依하면白米小賣商은 商業會議所를 動케 하야 大阪商議는 朝鮮移出白米의移出統制를要望하고 關係各要路에陳情한바잇서 朝鮮關係者의 關心을喚起코잇다

그理由는 米穀政策의強化에依하야 玄米及正租는 統制되어서 玄米와如함은 日本內地開港地所 有米도 統制圈內에두나 白米는 此點이自由임으로 市場을壓迫코 이대로放任함은 不可하다는 理由가 根本을 占한듯하다 右要望에는 一部的이나마 袋入白米不買와相異하야 理由가잇슴으로 今後 推持如何로는 白米移入統制問題로서 發展性도잇서 總督府에서도 그形勢를重大視코잇다한다

袋入白米 不買決議가 奏效안되니까 朝鮮移出白米 移出統制를 大阪商議로하야금 要望케하얏다고

○

이미 政策으로 統制되엇슴을또 어떠케 統制하라는말인가 大阪白米小賣商 大阪商議할것이서 꼰장거나 때려야할!

○

産業統制法 外地適用問題가 暗礁에 거러랏고

○

朝鮮의 特殊事情이라는 방패가 이런때 소용되는 모양이나 朝鮮人에게는 無關한 問題

北鮮製紙工場

十一月初操業

北鮮製紙化學工業의 吉州工場은 七千坪의 本工場을비롯하야 거의完成되어 機械設備에 着手하고十一月末或은 十一月初旬부터 操業을 開始할豫定인데 이미 建築費는七百萬圓을 要할으로 資本金拂込額五百萬圓으로는 不足하야 二百萬圓은借入金이로하고 來年에入하야 第二期計畫에 着手하는同時에 第二回拂込을徵收할模樣이라한다

第一計畫은 人絹펄프二萬噸豫定이라한다

設 滿滿키로 되엇다 右買收手續終了와가리 速히 鮮滿拓殖創立準備委員을 擧하야 八月中旬頃創立總會를 開催하리라한다

穀檢陣容整備

所長을勅任制로

穀物檢査의 國營移管以來檢査所의陣容은 漸次充實되엇는데 明年度는 更히奧地生産者의受檢獎勵로 約百名의技手와 六支所에技師各一名의 增員計畫이잇고 實現되면 技師十四名 技手千百名 으로될터인데 農林局에서는檢査所長의 勅任制를實現코저明年度豫算에經費를要求키로되엇다한다

京濱運賃交涉

大體好轉形勢

京濱西朝鮮間 朝鮮米運賃은 二十七日夕刻부터 東京에서 關係大船會社와 京濱荷主의 會合이 잇서서 協議한바 그結果는 아즉 當地船會社에 入電이업다 그러나 大體空氣는 好轉되는듯함으로 結局阪神着 運賃同樣五圓引上을 보이는데 京濱荷主로서는 朝鮮米의 措置에對하야 感情的으로 拘泥되어 잇슴으로 船會社는 殺騎代表의 諒解이必要하다한다

重要商品界事情

砂糖大期待難

需要는 顯著한 增稅가 업고 出荷高는 每月 一進一退의 步調를 繼續하는 在荷가 적은一面 臺灣의 甘蔗發育狀態가 今年도 天候不順으로 因하야 不良하므로 新糖의 年內出荷는 多當을 期待할수업서 需給關係가 依然 不圓滑 難想이다。

◇

新糖出廻開始前後의 十一、二月頃에 品不足의 金融가 錢和되지 못한 때문에 繼續하야 實需諸人氣가 만타 그러나 近日高價에는 外糖의 採算이되야 外糖이 輸入케되고 따러서 糖勢가 阻止케될뿐만 아니라 外糖의輸入이 늘면 不逆에 日本內地의 需給關係가 高價는 繼續키어렵고 따러서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 當分間外糖市勢가 好轉지안코 면 큰期待는 갓기가 어렵다는 觀測이 잇다

米日爲替强保合

【經會二十七日發同盟】今日의米 日爲替는 休日前日과 比較하면
賣買 二十九弗四分一 二十九弗八分三

取引停止

(七月二十四日)▲京城府仁寺町一一四番地 余文鎬

經濟界消息

○朝鮮小野田 一割配當=朝鮮小野田세멘트會社는 二十七日山口縣小野田本社에서 定時總會를 開催一割配當案을可決

○朝鮮煉炭五分處女配內定=朝鮮煉炭에서는 二十七日重役會를 開한結果來月十五日定時總會를 開催키로決定 處女配當은年五分內定

株式 無積極性 揉合

商況 【廿八日】

前場揉合

昨後場反撥이나 今前場은 伸力不續하야 揉合鈍重이엇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低인 百二十三圓二十錢、日産八十錢低인 七十八圓八十錢、朝新四十錢低인 三十一圓七十錢大引되고 日産新二十六圓丁 朝石十九圓三十錢이잇섯다

後場朝新低

後場도 亦是動意업시保合이엇스니即 東新百二十三圓三十錢、日産七十八圓八十錢、鐘新百五十八圓十錢、大新六十八圓三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七十三圓八十錢、朝新三十圓丁

▲東新 三三四(前)三三〇 三三二
▲日産 七九(前)七八 七八三 ...
[illegible]

庭堅이나伸惱

東京東新은 百二十四圓二十錢을 보히고 있으나 百二十四圓六十錢을 압두고 反撥되지못하는모양이다 時代色이 업고 民貨로 呻吟하야 伸力이 不足하다 그以上은 會意없

日産도利喰押

當所株로부터 人氣가 喪失되어 日産이 主力株로서代位하리라하야 八十圓關門을突破하고 買方第一目標가 示現되리라나 八十圓以上은 利喰함으로보낸 그現象으로 今前場은七十八圓臺로 下押되엇다 果然 日産이 能히東新에 代位할것이냐는것은 議論이 區區하나 日産의 代位云云은 東新人氣離散인 지금에만 그럴듯한말이겟고 日産이 買一巡이면 東新에다시 買氣가 移케될것으로도 보는者잇다 이번 事件으로 取引所制度改革은 商工省의 調査會以外는 立案치안흘것이 分明케되엇슴으로 도리어 取引所改革問題는 惡材出盡格이라할수잇서 東新不人氣도 不遠訂正될날이잇스리라고 强氣는 은근히期待하는모양이다

實物前場取引

▲東滿鐵三二〇 ▲秋田木材三〇 ▲同新三〇〇 ▲同和鑛業九五〇 ▲昭和人絹二五〇 ▲大同産業四〇〇 ▲月尾游園三〇〇 ▲東京瓦斯電氣工業六三〇 (取引高一二〇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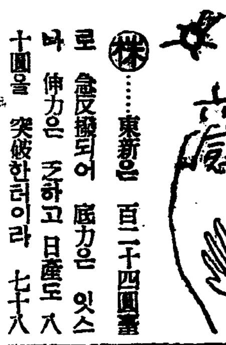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新規材料待로傍觀되어 場面이자못 無活氣이오 日本內地債는 全部無付이엇다 外貨債는 利拂關係로 佛貨五十錢高米貨는 引締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六五
一圓四分利 不申
二圓四分利 一〇二、六五
佛貨四分利 一九八、九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二 ▲第三五分 一〇一… ▲二圓四分 一〇五 ▲二圓四分 一〇一… [illegible]



株……東新은 百二十四圓臺로 急反撥되어 底力은 잇스나 伸力은 不足하고 日産도 八十圓을 突破한이라 七十八圓臺로 下押▲이것저것할수업시 環境이 險相의 强硬態度로 因한 政局不安、日中關係의 逆轉等 內憂外患이지라 活惠한 市勢는 漿期▲今年에 들어서 두번식이나 地震이잇섯스니 東新의 無理大崩落이도 잇을것갓지안코 그렇다고 取引所株大勢悲觀이 存在한限 積極的上進도 어려우니 當分은 百二十圓과 百二十四、五圓臺의 揉合으로 消日코 新動機待일모양

米……小商島의 小低氣壓이 東 又는 南北으로 進行하는 바람에 北朝鮮과 中部에는 豪雨害▲來▲去廿四日以來 雨天으로 雷雨期에 入한 觀이 업지안흘가▲結局 말하면 늣장마인데 差違의 鐵이 업지 아니하니 植物學로서의 觀今 夢狀도高潮▲그런데 今後 天候가 順調인때는 豐稔의 收穫이 相當할지 누구가알랴?▲何如間 日本內地의 稻作의 豐凶 朝鮮豐凶의 三南이 豐作이라하니 中部以北이 平年作만되면 大體今年米作의 豐凶을可期

遠한다드래도 實際로 人氣를 振作식힌에는 當業者들이 何等의 方策을 樹立하여야할것이다 그리하야 東新의大勢悲觀은 價位가 低下함에도不拘코 依然不去하는 리이나 數十年來의 東新의傳統을 訂正하기도 容易지안홀것으로 서 今後의東新은 果然어떠할지 좀더 形勢를 보는수밧게 업는터이엇다

것갓고 正米의 事情으로보아 할지라도 七月一日現在의 殘存米의數字로 보아서 民間米의 理想持越이 三百五十萬石程度에 不過하나 그러나 萬一需給難의 境遇에는 政府所有米의 拂下로서 緩和케할것이오 朝鮮의在米는 例年同期보다 오히려 潤澤한 편임으로 供給難의 憂慮는 업슬것갓다 어와가티 好順氣를 害하고 도그러지 需給의 不安을 늣기지안는 今日에 市勢가 反히逆行함은 全혀仕手關係가 아닌가한다 그러나 仕手關係는 永續性이 업는것임으로 모

期米 亂高下裡 低落

前場續高 昨後場에 比하여 三十一圓二十九錢에 寄付후 前場二十三圓三十七錢止와共히 三十一圓二十八錢에 後場止하야 當市場도 一圓 今朝에入하야 阪地寄付三十三圓 四十六錢에 寄付하야 五丁高를 보이고 三十一圓三十一錢까지로 續高하고 四十一錢인 二丁高로 三十一圓三十一錢인 一丁高로 後場止 後場亂高下 後場은 阪地前場四十六錢으로 四十一錢까지 下押하엿다가 結局 四十六錢에 止하야 二十三錢이었든 當市場은 二十九錢에 止하야 三十一圓三十一錢까지 小 幅하엿다가 前場에 止하엿으로 後場은 三十一 圓二十九錢에 寄付한 後場에 高値 三十一圓에 止하야 十三丁低를 示하다가 前場에 十三丁低로 보히다가 前場에 三十一圓三十三錢이고 十八錢에 止하야 最終二十九錢이오 十九錢이고 十八錢으로 止하고

好順氣에 逆行

全然仕手關係?

日本內地의 稻作狀況은 積付以 來에 一時天候不順으로 업지 안희 스나 其後에고온溫潤하게 天候가 順調하야 土用天候로 無難經過되어 全國的으로 樂觀을 許하며 朝鮮의 稻作도 南에는 旱害 中部以北은 降雨로 인하여 그 凶作의 悲觀說이 擴頭로 되어 反數量 一擧에 增加하엿스나 또한 今日 의 現象으로

月末步調緩刻

大下輸안두고

新穀九輸에 納會後 新米價가 東京市場에 流入함에 따라 市場을 攪亂하엿든 百四十六圓程度는 下落하엿을때 十丁以下의 下落에 應할 한動産의 大勢는 그外가 如何히 展開될것 인가함이 一般의 關心이다 다만 差違에 三十一圓三十錢 前後 이다 十丁以下의 下落이 뎌 一圓以上은 九十錢臺의 低値로 보히는 比한 行事도 伸力이 업스며 또 期近期 當期의 稻作 不如意로 下落이 업는 것이오 下落의 進行이 反 如何를 알아서 行動하고 下落後 約 가 取引所 업고 그 行事가 月末戰에 남길 市場의 先行 逼迫한 狀況으로 말미암아 南方警戒相의 貫통에 後 三、三十錢臺에서 終戰을 쩌서 것도 가본데 當局市價를 中心 으로한 田中貞、瀬谷等有力賣方 의 態度가 如何할지 全部仕手關 係도 無視할터라고 함수업스나 今 後天候如何에 業에 關係가 잇 습으로 十限이 發會된後의 市勢 는又一層 興味가多할모양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 中 先
[illegible]
▲買方
[illegible]

今日財界 (廿八日)

◆米 (京城市場)
仁川正米 先 三十一圓二八
大阪期米 先 三十一圓七
京城一等 一石 三十三圓
◆市中金融
正租(仁川)一等 一斗
一斤 貸 三等
◆株 (東京市場)
東新 日産
◆紗 (大阪市場)
大阪綿絲 大阪人絹 大阪綿花 大阪砂糖 ゴムFAQ

[illegible]

仁川強調

期米高寄보고 一時는十五錢反撥이나 前場은低價에 依하야 出來不振이엇다 ●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一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正來揉合 反引

釜山軟合

期米側의 氣配도 顯著하지 아니하며 人氣도 大體好 狀況도 依然하야 市況은 少步合이 엇다 ◎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大邱集付

期待來日 依然 賣方의 豫想的으로 動치안코 ◎大勢는 前日과 大差없시 不變하게 三等三十一圓七十錢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群山少康

期米四錢 日本內地의 定期 米價의 前場高로 人氣少康回復이나 賣買閑散 ◆ ◆ 三等三十一圓三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六十錢

木浦不變

一般이 來月을 待하는 中 期米堅調에도 不振하고 保合인 ◎三等二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

建益商會 米 株 京城 仁川 金益證券商店

堂島前場賣買

▲賣方=東側 東京米穀 汐崎
▲買方=中側 地場小口 地場 …

各地正米

京城反撥

朝上降雨로 取引이 期米高 放물보고 十五錢高 氣配인 ◎二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一圓八十錢 一等白米二十三圓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石金 分析 賣買 土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〇番地 電話本局②三三一六番 振替京城一九一五四番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德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②3939 振替京城2834 金銀貴金屬 文注方地

金融

◆海外經濟◆ 廿七日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京城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商品 廿八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廿八日
[illegible]

◆京城綿布◆ ◆綿押付價◆ ◆綿油粕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商品 廿八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大阪砂糖◆ ◆橫濱生糸◆ ◆海外砂糖◆ ◆外升貝期貨◆
[illegible]

◆各地正租市況◆ (單位石)
[illegible]

證券 廿八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限定代引日步◆ ◆大阪長期◆
[illegible]

商品 廿八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群山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正米◆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